

수 공 가

동편제 - 김수연(金秀研) 창본(唱本)

신 ○ 산 풀이¹⁾

<아니리>

갑신년(甲申年) 중하월(中夏月)²⁾에 남해 광리왕(廣利王)³⁾이 영덕전(靈德殿)⁴⁾ 새로 짓고, 대연(大宴)⁵⁾을 배설(排設)⁶⁾할 제, 삼해(三海) 용왕을 청하여 군신빈객(君臣賓客)⁷⁾을 좌우로 늘려 앉혀 수삼 일을 즐기더니, 과음(過飲)하신 탓이온지 용왕이 우연히 득병(得病)하여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데,

<진양>

탑상(榻床)⁸⁾을 탕탕 뚜드리며 탄식하여 울음을 운다. 용왕의 기구(祈求)⁹⁾로되,

‘괴이한 병을 얻어 수정궁(水晶宮)¹⁰⁾의 높은 집에 벗 없이 누웠던들, 화타(華陀)¹¹⁾ 편작(扁鵲)¹²⁾이 없었으니, 어느 누구가 날 살릴거나.’

웅장한 용성(龍聲)¹³⁾으로 신세 자탄(自嘆) 울음을 운다.

<엇모리>

뜻밖에 현운(玄雲) 흑운(黑雲)¹⁴⁾이, 궁정(宮

- 1) 이 글은 방언을 최대한으로 표준어로 풀어 쓴 것임.
- 2) 여름의 중간 무렵.
- 3) 당나라 현종이 해신(海神)들을 왕으로 봉함. 동해신은 광덕왕(廣德王), 남해신은 광리왕(廣利王), 서해신은 광윤왕(廣潤王), 북해신은 광택왕(廣澤王)
- 4) 용왕이 집무를 맡아 보는 곳.
- 5) 큰 잔치.
- 6) 연회나 잔치 등을 차려 놓음.
- 7) 임금과 신하, 귀한 손님들.
- 8) 곁상과 평상(平床)의 총칭.
- 9) 원하는 바가 실현되도록 빌고 바람.
- 10) 수정으로 꾸몄다는 전설상의 화려한 궁전.
- 11) 중국 후한 말기의 명의(名醫).
- 12) 중국 전국 시대의 명의(名醫).
- 13) 임금의 목소리.

廷)¹⁵⁾을 뒤덮고, 폭풍 세우(細雨)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선의도사(仙醫道師)¹⁶⁾가 학창의(鶴鶩衣)¹⁷⁾ 떨쳐입고 궁전에 내려와 재배이진(再拜而進)¹⁸⁾ 왈(曰),

“약수(弱水) 삼천리(三千里)¹⁹⁾에 해당화 구경가, 백운요지연(白雲瑤池宴)²⁰⁾에 천년벽도(千年碧桃)²¹⁾를 얻으려고 가옵다가, 과약풍편(寡弱風便)²²⁾에 듣사오니, 대왕의 병세가 만만(萬萬)²³⁾ 위중(危重)타기로 뵈옵고저 왔나이다.”

<아니리>

용왕이 반겨하사,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脈)을 보아 황황(遑遑)²⁴⁾히 나의 병세에 특효지약(特效之藥)을 자세히 일러 주시옵소서.”

<자진모리>

왕이 팔을 내어주니, 도사 앉아 맥을 볼 제, 심소장(心小臟)²⁵⁾은 화(火)이요, 간담(肝膽)²⁶⁾은

- 14) 현운, 흑운 모두 검은 구름.
- 15) 궁궐.
- 16) 의학 신선.
- 17) 소매가 넓고 뒤 솔기가 갈라진 흰옷의 가를 돌아가며 검은 형겁을 넓게 대었던 옷.
- 18) 두 번 절하고 앞으로 나섬.
- 19)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으로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았다고 함.
- 20) ‘요지’는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뜻으로 신선이 살았다고 하며, 주나라 목왕이 서왕모를 만났다는 이 이야기로 유명함.
- 21) 선경(仙境)에 있다는 전설상의 복숭아.
- 22) 아주 약하게 떠도는 소문
- 23) 아주.
- 24) 마음이 급해 허둥거리며 정신이 없음.
- 25) 심장과 소장.
- 26) 간과 쓸개.

목(木)이요, 폐대장(肺大腸)¹⁾은 금(金)이요, 신방광(腎膀胱)²⁾은 수(水)요, 비위(脾胃)³⁾는 토(土)라. 간맥(肝脈)이 태과(太過)⁴⁾하여 목극토(木克土)⁵⁾하였으니, 비위(脾胃)가 상하옴고, 담성(痰聲)⁶⁾이 심하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장(肺大腸)이 왕성하니 간담경자진(肝膽驚自盡)⁷⁾이라.^{미주1)}

방서(方書)⁸⁾에 일렀으되, 비(脾)는 내일신지조종(乃一身之祖宗)⁹⁾이요, 담(膽)은 내일신지표본(乃一身之標本)¹⁰⁾이라. 심정즉만병(心靜則萬病)이 식(息)하고¹¹⁾, 심동즉만병(心動則萬病)이 생(生)하오며¹²⁾, 심경(心經)¹³⁾ 곧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 날까.

오로(五勞)¹⁴⁾ 칠상(七傷)¹⁵⁾이 급하오니, 보중탕(補中湯)¹⁶⁾을 잡수시오. 숙지황(熟地黃)¹⁷⁾ 주증(酒炒)¹⁸⁾ 닷 돈¹⁹⁾이요, 산사육(山楂肉)²⁰⁾, 천문동(天門冬)²¹⁾, 세신(細辛)²²⁾을 거토(去土)²³⁾ 육

- 1) 폐와 대장.
- 2) 콩팥과 방광.
- 3) 비장과 위장.
- 4) 아주 심함.
- 5) 오행상생상극설의 하나. 오행에서 목(木)은 토(土)의 영양분을 취하여 성장함으로써 토(土)의 힘을 약하게 함.
- 6) 가래가 목구멍에서 끓는 소리.
- 7) 간과 쓸개가 놀라 물기 따위가 저절로 다 없어짐.
- 8) 신선의 술법을 적은 글이나 책.
- 9) 비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기관.
- 10) 쓸개는 우리 몸의 상태를 알리는 기관.
- 11) 마음이 고요해지면 만 가지 병이 사라짐.
- 12) 마음이 움직이면 만 가지 병이 생김.
- 13) 경맥(經脈)들의 기본이 되는 십이정경(十二正經)의 하나로, 심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체의 중심부로 횡격막을 뚫고 내려가서 소장을 도는 맥.
- 14) 심(心)이 피로하면 혈(血)이 약해지고, 간이 피로하면 정력이 약해지고, 방광이 피로하면 먹는 것이 약해짐.
- 15) 신기(腎氣, 남자의 정력)가 허약하여 생기는 일곱 가지 증상. 음한(陰寒), 음위(陰痿), 이급(裡急), 정루(精漏), 정소(精少), 정청(精淸), 소변삭(小便數).
- 16) 원기를 도우며, 피로나 영양실조로 인한 열, 땀 따위 또는 감기 따위를 푸는 데 쓰는 보중익기탕.
- 17) 생지황을 술에 여러 번 찌 약재로, 보혈(補血)과 보음(補陰)에 효능이 있음.
- 18) 술을 타 끓임.
- 19) 귀금속이나 한약재의 무게를 잴 때 쓰는 단위로 3.75 그램.
- 20) 산사나무의 열매로 위산 과다증, 두진, 산증에 씀.

중용(肉菹蓉)²⁴⁾, 택사(澤瀉)²⁵⁾, 앵속화(罌粟花)²⁶⁾ 각 한 돈, 감초(甘草) 칠 폰²⁷⁾, 수일승전반연용(水一升煎半連用)²⁸⁾ 이십여 첩 쓰되, 효무동정(效無動靜)²⁹⁾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백출탕(加減白朮湯)³⁰⁾을 잡수시오. 백출을 초구(醋灸)³¹⁾하여 서 돈이요, 사인(沙仁)³²⁾을 초구하여 두 돈이요, 백복령(白茯苓)³³⁾, 사향(麝香)³⁴⁾, 오미자(五味子)³⁵⁾, 해황(懈筐)³⁶⁾, 당귀(當歸)³⁷⁾, 천궁(川芎)³⁸⁾, 강활(羌活)³⁹⁾, 독활(獨活)⁴⁰⁾ 각 한 돈, 감초(甘草)⁴¹⁾ 칠 폰 수일승전반연용(水一升煎半連用) 사십여 첩을 쓰되, 효무동정(效無動靜)이라.

신농씨(神農氏)⁴²⁾ 백초약(百草藥)⁴³⁾을 갖가지로다. 쓰러다가는 지레 먼저 죽을 테니, 약을

- 21)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덩굴풀로 덩이뿌리를 해소, 담, 객혈, 번조 등의 증세에 씀.
- 22) 족두리풀의 뿌리로 두통, 발한, 거담 등의 증세에 약재로 씀.
- 23) 흙을 털어냄.
- 24) 사막에서 자라는 육질경(肉質莖)을 사용해 만든 약재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키우고 음기를 강하게 함.
- 25) 택사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덩이뿌리를 이노, 임질, 습진, 부종 등에 씀.
- 26) 양귀비. 천식, 설사, 복통, 신장병에 씀.
- 27) 무게의 단위. 한 돈의 10분의 1.
- 28)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되도록 달여 복용함.
- 29) 약효가 없어 병의 차도가 없음.
- 30) 백출은 삼주의 뿌리를 말린 약재로 가래, 기침을 치료하는 데 씀.
- 31) 식초와 같이 볶음.
- 32) 축사(縮沙)의 씨로 설사 또는 소화 불량에 씀.
- 33) 흰 복령으로 담증, 부증, 습증, 설사 등에 씀.
- 34) 사향노루의 사향샘을 건조하여 얻는 향료로 강심제, 각성제 등에 씀.
- 35) 오미자나무의 열매로 기침과 갈증 또는 땀과 설사를 멎게 하는 데에 씀.
- 36) 머위.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뿌리를 진해제로 씀.
- 37) 승검초의 뿌리로 부인병의 약재로 씀.
- 38) 천궁이의 뿌리로 혈액 순환에 씀.
- 39) 강활의 뿌리로 두통, 오한, 발열 등에 씀.
- 40) 멧두릅의 뿌리로 편두통의 치료에 씀.
- 41) 모든 약의 독성을 조화시켜서 약효가 잘 나타나게 하며, 장부의 한열과 사기를 다스리고 모든 혈액의 소통을 잘 시키며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함.
- 42) 중국 전설상의 제왕으로 불을 다스렸던 신으로 엄제라고도 부름. 의약(醫藥), 쟁기와 보습, 도기(陶器), 활을 발명했고, 140년간 재위하면서, 백성을 위해 수많은 약초를 맛보다가 죽었다고 함.
- 43) 온갖 약초.

한데 모을 적에, 인삼(人蔘)은 미감(味甘)¹⁾하니 대보원기(大補元氣)²⁾하고, 지갈생진(止渴生津)³⁾하면 조영양위(造榮養胃)⁴⁾로다. 백출(白朮) 감온(甘溫)⁵⁾하니 건비강위(健脾強胃)⁶⁾하고 제사제습(除瀉除濕)⁷⁾하고, 겸치담비(兼治膽脾)⁸⁾라.

감초는 감온(甘溫)하니 구즉온중(灸則溫中)하고 생즉사하(生則瀉下)⁹⁾로다. 침구(鍼灸)¹⁰⁾로다 다스릴 제, 천지지상경(天地之上經)¹¹⁾이며, 갑일(甲日) 갑술(甲戌) 시에 담경(膽經)¹²⁾ 유주(流注)¹³⁾로 주고, 을일(乙日) 유시(酉時)에 대장경(大腸經)¹⁴⁾ 상양(商陽)¹⁵⁾을 주고, 영구(靈龜)¹⁶⁾로 주어 보자.

일신맥(一申脈), 이조해(二照海), 삼외관(三外關) 사임읍(四臨泣)에 오소해(五小海), 육공손(六公孫), 칠후계(七後谿), 팔내관(八內關), 구열결(九列決)¹⁷⁾ 삼기(三氣)¹⁸⁾를 부쳐, 팔문(八門)¹⁹⁾과 좌맥(左脈)²⁰⁾을 풀어주되, 효험이 없으니 십이경(十二經)²¹⁾ 주어 보자.

승장(承漿), 염천(廉泉), 천돌(天突), 구미(鳩尾), 거궤(巨闕), 상완(上腕), 중완(中腕), 하완

(下腕), 신궤(紳闕), 단전(丹田), 곤륜(崑崙)²²⁾을 주고,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²³⁾, 삼음교(三陰交) 음릉천(陰陵泉)²⁴⁾을 주어 보되, 아무리 약과 침구(針灸)를 하되, 병세 점점 위중토다.

<단중모리>

도사 다시 맥을 볼 제,

“맥이 경동맥(經動脈)²⁵⁾이라 비위맥(脾胃脈)이 상하오면 복중(腹中)으로 난 병이요, 복중이 저러 아프기는 화병(火病)²⁶⁾으로 난 병인데, 음황(陰黃)²⁷⁾ 풍병(風病)²⁸⁾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여 손기(損氣)²⁹⁾ 산기(疝氣)³⁰⁾는 정음(正陰)이요, 진경(震驚)³¹⁾에 미혹(迷惑)은 정양(正陽)³²⁾이라. 음허(陰虛)³³⁾, 화동(火動)³⁴⁾, 황달(黃疸)³⁵⁾을 겸하였사오니,

진세(塵世)³⁶⁾ 산간(山間)의 토끼 간(肝)을 얻으면 차효(差效)³⁷⁾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閻羅大王)이 동성삼촌(同姓三寸)³⁸⁾이요, 동방삭(東方朔)³⁹⁾이가 조상(祖上)이 되어도, 누루 황(黃), 새암 천(川), 돌아갈 귀(歸) 하였소.⁴⁰⁾”

- 1) 단맛이 나니,
- 2) 인체의 몸과 마음의 활력을 보호함.
- 3) 갈증을 그치게 하는 생즙. 갈증을 멈추게 하고 진액(津液)을 만들게 함.
- 4) 영양을 조성하고 위를 건강하게 함.
- 5) 달고 따뜻함
- 6) 지라와 위를 강하게 함
- 7) 설사를 멎게 하고 습기를 제거함.
- 8) 쓸개와 지라를 함께 치료함.
- 9) 구위 쓰면 속을 데우고, 생으로 쓰면 열을 식힘.
- 10) 침과 뜸.
- 11) 천지간의 어디에나 통용되는 도리
- 12) 침술에서 말하는, 눈초리에서 시작하여 넷째 발가락 끝에 이르는 선.
- 13) 침술의 한 종류.
- 14) 십이경맥의 하나.
- 15) 집게손가락 손톱 안쪽 손마디 끝에 있는 두 개의 혈맥.
- 16) 하루의 간지(干支)에 따라 주역의 괘를 뽑아 혈 자리를 정하는 침술법.
- 17) 손목과 발목 아래에 위치하는 아홉 혈맥.
- 18) 풍(風), 한(寒), 습(濕)의 세 가지 나쁜 기운.
- 19) 낙서(洛書)와 구궁(九宮)에 기초한 여덟 가지 문.
- 20) 임맥과 독맥의 좌측 혈맥.
- 21) 기운이 흐르는 길을 경맥.

- 22) 모두 혈맥.
- 23) 엄지발가락 안쪽 끝에서 시작하여 허 밑 부근에 이르는 혈맥.
- 24) 정강이뼈에 있는 혈맥.
- 25) 경(經)이 움직이는 맥.
- 26) 울화병.
- 27) 양기(陽氣)가 줄고 음기가 성해 일어나는 병.
- 28) 외풍(外風, 밖에서 침입한 병의 원인)과 내풍에 의해서 생긴 병증의 통칭.
- 29) 심한 자극을 받아 기운이 빠진 것.
- 30) 하복부에 통증이 생긴 것.
- 31) 떨며 놀람.
- 32) 풍수지리에서 24방위를 12방위씩 정음과 정양으로 나눈 것.
- 33) 오후가 되면 추워지고 열이 나는 병.
- 34) 몸에 수분이 부족하여 허열(虛熱)이 생기는 병.
- 35) 주로 간의 이상으로 쓸개즙의 색소가 혈액에 옮겨 가서 생기는 병.
- 36) 티끌 세상. 속세.
- 37) 차도(差度).
- 38) 염라대왕이 백부 또는 숙부가 됨.
- 39) 한나라의 문인으로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어 장수하였으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이름.
- 40) 황천으로 돌아감. 곧 죽음을 피할 수 없음.

<아니리>

용왕이 왈,

“신농씨 백초약은 어찌 약이 아니 되웁고, 조그마한 진세 토끼 간이 약이라 하나이까?”

도사 왈,

“용왕은 진(辰)이요, 토끼는 묘(卯)라. 묘을손(卯乙巽)은 음목(陰木)이요, 간진술(艮辰戌)은 양토(陽土)라 하였으니, 어찌 약이 아니 되오리까?”^{미주2)}

수궁(水宮)에는 토끼가 없는지라,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데,

<진양>

왕 왈,

“연(然)¹⁾하다. 수연(雖然)²⁾이나 창망(滄茫)³⁾한 진세 간에 벽해(碧海)⁴⁾ 만경(萬頃)⁵⁾ 밖에 백운(白雲)이 구만리요, 여산송백(驪山松柏)⁶⁾ 울울창창(鬱鬱蒼蒼)⁷⁾ 삼척고분(三尺孤憤) 황제(皇帝)의 묘(墓)⁸⁾라.

토끼라 하는 짐승은 해외(海外)⁹⁾ 일월(日月)의 밝은 세상 백운청산(白雲靑山) 무정처(無定處)¹⁰⁾로 시비(是非)없이 다니는 짐승을 내가 어찌 구하리까? 죽기는 험사와도 토끼는 구하지 못하겠으니, 달리 약명(藥名)¹¹⁾을 일러를 주오.”

<아니리>

도사 여쭙오되,

“용왕의 성덕(盛德)¹²⁾으로 어찌 성공지신(成

- 1) 그러하다.
- 2) 비록 그러하지만.
- 3) 멀고 아득함.
- 4) 푸른 바다.
- 5) 아주 넓은 수면.
- 6) 여산의 소나무와 잣나무. ‘여산’은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산.
- 7) 뾰뾰하게 우거져 푸르고 무성함.
- 8) 진시황의 무덤.
- 9) 바다 밖. 곧 물.
- 10) 정한 곳 없이.
- 11) 약 이름.
- 12) 크고 훌륭한 덕.

功之臣)¹³⁾이 없사오리까?”

말을 마친 후, 인홀불견(因忽不見)¹⁴⁾ 간 곳이 없자, 용왕이 그제야 도승(道僧)인 줄 짐작하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謝禮)¹⁵⁾ 후에, 수국(水國) 조정 만조백관(滿朝百官)¹⁶⁾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이 세상 같고 보면, 일품(一品) 재상님네들이 들어오시려만는,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等物)¹⁷⁾들이 각각 벼슬 이름을 맡아가지고 들어오는데, 가관이었다.

<자진모리>

승상(丞相)¹⁸⁾은 거북, 승지(承旨)¹⁹⁾는 도미, 판서(判書)²⁰⁾ 민어, 주서(注書)²¹⁾ 오징어, 한림박사(翰林博士)²²⁾ 대사성(大司成)²³⁾ 도루묵, 방첨사(蚌僉使)²⁴⁾ 조개, 해운관(海運官)²⁵⁾ 방개, 병사(兵使)²⁶⁾ 청어, 군수(郡守) 해구²⁷⁾, 현감(縣監) 홍어, 조방장(助防將)²⁸⁾ 조기, 부별(府別)²⁹⁾ 낙지, 장대, 성대, 청다리, 가오리, 좌우 나졸(邏卒)³⁰⁾ 근근³¹⁾ 모도리, 상어, 솔치, 눈치, 준치, 멸치, 삼치, 가재, 개구리까지 명(命)을 듣고 어전(御前)³²⁾에 입시(入侍)³³⁾하여 대왕에게

- 13) 성공할 수 있는 신하.
- 14) 언뜻 보이다가 바로 없어짐.
- 15)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냄.
- 16)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
- 17) 종류가 같은 물건.
- 18) 정승.
- 19)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삼품의 당상관.
- 20) 육조의 으뜸 벼슬.
- 21) 승정원의 정칠품 벼슬
- 22) 예문관에서 사초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정구품 벼슬.
- 23) 성균관의 으뜸 벼슬로 정삼품임.
- 24) 내시부의 종삼품 벼슬.
- 25) 해상 수송을 맡아보던 조창(漕倉)의 관리.
- 26)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각 지방에서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
- 27) 물개.
- 28) 주장(主將)을 도와서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장수로 관할 지역 내의 무재(武才)를 갖춘 수령이 맡음.
- 29) 의금부 별군(別軍)의 장교.
- 30) 밤에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순찰을 돌던 포도청의 병졸.
- 31) 딱 차 있음.
- 32) 임금의 앞.
- 33) 대궐에 들어가 왕을 알현하던 일.

절을 꾸벅꾸벅.

<아니리>

병든 용왕이 가만히 보시더니,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오뉴월 생선전(生鮮塵)¹⁾ 도물주(都物主)²⁾가 되었구나. 하나 경들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에 나가 토끼를 구하여 다 짐의 병을 구할 소냐?”

좌우 면면상고(面面相顧)³⁾ 묵묵부답(默默不答)⁴⁾이었다.

<중모리>

왕이 다시 탄식한다.

“남의 나라는 충신이 있어서, 할고사군(割股事君)⁵⁾ 개자추(介子推)⁶⁾와 광초망신(狂楚亡身)⁷⁾ 기신(紀信)⁸⁾이는 죽을 인군(人君)⁹⁾을 살렸건마는, 우리나라도 충신이 있으려만는 어느 누구가 날 살리리오.”

정언(正言)¹⁰⁾ 잉어가 여쭙오되,

“승상 거북이 어떠하뇨?”

“승상 거북은 지략(智略)¹¹⁾이 넓사웁고, 복판이 모두 다 대모(玳瑁)¹²⁾인 고로, 세상을 나가 오면 인간들이 잡아다가 복판 떼어 대모장도(玳瑁粧刀)¹³⁾, 밀개, 살쩍¹⁴⁾, 탕건 모두기¹⁵⁾, 철

- 1) 생선을 파는 가게.
- 2) 도매상인.
- 3) 서로 말없이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봄.
- 4) 잠자코 대답이 없음.
- 5) 허벅지의 살을 베어냄.
- 6) 중국 춘추시대의 은사(隱士)로 진나라 문공이 망명 생활을 할 때 그를 모셨는데, 후에 문공이 왕위에 올랐으나 개자추를 등용하지 않았다. 실망한 그는 산에 들어가 살았는데 문공이 산에 불을 질러도 나오지 않고 타 죽었다고 함.
- 7) 초나라를 속이고 목숨을 잃음
- 8) 한고조(漢高祖, 유방)의 신하. 고조가 항우와 싸우다가 아주 위급한 지경에 빠졌을 때, 기신이 한고조로 가장하여 대신 죽고 고조를 탈출시킴.
- 9) 임금.
- 10) 사간원의 정육품 관직.
- 11) 슬기로운 계략.
- 12) 바다거북의 등과 배를 싸고 있는 껍데기로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쓰임.
- 13) 장도(작은 칼)의 손잡이나 칼집을 대모로 만든 것.
- 14) 망건을 쓸 때 귀밑머리를 망건 속으로 밀어 넣는

쌈지¹⁶⁾ 끈까지 대모가 아니면 할 줄을 모르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자진중모리>

“그럼, 방첨사 조개가 어떠하뇨?”

“방첨사 조개는 철갑(鐵甲)¹⁷⁾이 곳곳 방신지도(防身之道)¹⁸⁾는 종사와도, 옛글에 이르기를 관방홀지세(觀蚌鷸之勢)하고 좌수어인지공(坐收漁人之功)¹⁹⁾이라. 홀조(鷸鳥)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 펄펄 날아들어, 홀조는 조개를 물고 조개는 홀조를 물고, 서로 놓지를 못할 적에, 어부에게 모두 다 잡히어 속절없이 죽을 것이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아니리>

“그럼 수문장(守門將) 미어기²⁰⁾가 어떠할꼬?”

<자진모리>

정언(正言)이 여쭙오되,

“미어기는 장수구대(長鬚口大)²¹⁾ 하여 호풍신(好風神)²²⁾하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食量)²³⁾이 너른 고로, 세상을 올라가면 요깃(療飢)감²⁴⁾을 얻으려고 조그마한 산천수(山川水) 이리저리 다니다, 사립(蓑笠)²⁵⁾ 쓴 어옹(漁翁)²⁶⁾들이 사풍세우(斜風細雨)²⁷⁾, 물속에다 입꼬²⁸⁾가 꿰어 물에 풍덩 탐식(貪食)²⁹⁾으로 덜컹

- 물건.
- 15) 탕건을 보관하는 상자인 듯(?)
- 16) 담배를 넣어서 소매나 호주머니에 넣게 된 쌈지.
- 17) 쇠로 만든 갑옷.
- 18) 몸을 막는 방법.
- 19) 조개와 도요새의 다툼을 보고 있다가, 어부가 앉아 있다가 편안히 이익을 얻음. 곧 어부지리(漁父之利)의 고사.
- 20) 메기.
- 21) 수염이 길고 입이 큼.
- 22) 좋은 풍채
- 23) 먹는 분량.
- 24) 먹을 것.
- 25) 도롱이와 삿갓
- 26) 어부.
- 27) 비끼어 불어오는 바람과 가늘게 내리는 비.
- 28) 미끼.
- 29) 음식을 탐함.

삼켜 담불¹⁾ 여대(興臺)²⁾ 죽게 되면, 인간의 이질(痢疾)³⁾, 복질(服疾)⁴⁾, 설사, 배앓이 하는데,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지는 못하리다.”

<아니리>

해운군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짝 벌리고, 살살 살살 기어 들어와 공손히 여쭙오되,

<중중모리>

“신의 고향 세상이요, 신의 고향 세상이라. 청림벽계(靑林碧溪)⁵⁾ 산천수 가만히 잠신(藏身)⁶⁾하여 천봉만학(千峰萬壑)⁷⁾을 바라보니, 산중퇴(山中兎) 월중퇴(月中兎)⁸⁾ 안면(顔面)⁹⁾이 있사오니, 소신(小臣)의 엄지발로 토끼 놈의 가는 허리를 바드득 짊어다가 대왕전 바치리다.”

<아니리>

공론(公論)¹⁰⁾이 분분(紛紛)¹¹⁾할 제,

<진양>

영덕전 뒤로 한 신하가 들어온다. 은목단족(隱目短足)¹²⁾이요, 장경오훼(長頸烏喙)¹³⁾로다. 홍배(紅背)¹⁴⁾ 등에다 방패(方牌)를 지고, 양금양금 기어들어 와 국궁재배(鞠躬再拜)¹⁵⁾를 하는 구나.

<아니리>

왕에게 상소(上疏)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

- 1) 곡식이나 나무를 높이 쌓아 놓은 무더기.
- 2) 높이 쌓은 양식 무더기 두고 대를 잊지 못함.
- 3) 설사.
- 4) 배앓이.
- 5) 푸른 숲과 푸른 시냇물.
- 6) 몸을 감춤.
- 7)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8) 산속의 토끼, 달 속의 토끼.
- 9) 서로 낮이나 익힐 만한 친분.
- 10) 여럿이 모여 의논함.
- 11) 어지러움.
- 12) 눈이 숨어 있고 다리가 짧음.
- 13) 목이 길며 주둥이가 까마귀의 부리처럼 뾰족함.
- 14) 붉은 등
- 15) 허리를 구부려 두 번 절함.

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忠心)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眞味)가 된다는데, 너를 보내고 내 어찌 안심할 소냐?”

별주부(鬘主簿)¹⁶⁾ 여쭙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江上)에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잘하오니, 무슨 봉패(逢敗)¹⁷⁾ 있사오리카 마는, 수국(水國)의 소생(所生)¹⁸⁾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畫像)¹⁹⁾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그것일랑은 그리하라. 여봐라. 화공(畫工)²⁰⁾을 불러들여라.”

<중중모리>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洞庭琉璃)²¹⁾ 청홍연(靑紅硯)²²⁾, 금수추파(錦水秋波)²³⁾ 거북 연적(硯滴)²⁴⁾, 오징어로 먹 갈아 양두화필(兩頭畫筆)²⁵⁾을 덤뻑 풀어 단청(丹青)²⁶⁾ 채색(彩色)을 두루 묻히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天下名山) 승지강산(勝地江山)²⁷⁾ 경개(景概)²⁸⁾ 보던 눈 그리고, 봉래방장(蓬萊方丈)²⁹⁾ 운무중(雲霧中)³⁰⁾에 내 잘 말던 코 그리고, 난초(蘭草) 지초(芝草)³¹⁾ 온갖 향초 꽃 따 먹던 입 그리고, 두견(杜鵑) 앵무(鸚鵡) 깃어

- 16) ‘별’은 자라, ‘주부’는 각 아문의 문서와 부적(符籍)을 주관하던 종육품 벼슬.
- 17) 낭패를 당함.
- 18) 태어남.
- 19) 사람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 형상.
- 20) 화가.
- 21) 중국 동정호의 물빛이 유리처럼 투명함.
- 22) 오색의 빛이 떠서 난다는 벼루.
- 23)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을 담음.
- 24) 벼룻물을 담는 작은 그릇.
- 25) 양쪽에 붓털이 달린 붓.
- 26)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과 무늬를 그림.
- 27) 경치가 좋은 강산,
- 28) 경치.
- 29)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삼신산(三神山) 중, 봉래산(蓬萊山)과 방장산(方丈山).
- 30) 구름과 안개.
- 31) 영지버섯.

울 제, 소리 들던 귀 그리고, 만화방창(萬化方暢)¹⁾ 화림중(花林中)²⁾ 펄펄 뛰던 발 그리고, 대한엄동(大寒嚴冬)³⁾ 설한풍(雪寒風)⁴⁾ 방풍(防風)⁵⁾하던 털 그리고,

두 귀는 쫓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쫓지 못, 좌편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綠水)인데, 녹수청산(綠水靑山)에 에굽은⁶⁾ 장송(長松), 휘늘어진 양류(楊柳)⁷⁾ 속 들랑날랑 오락가락 영거주춤 기어나가는 토끼 화중토(畫中兔)⁸⁾ 얼핏 그리어 아미산월(峨眉山月)에 반륜토(半輪兔)⁹⁾ 이에서 더할 소냐.

“아나, 였다. 별주부야, 네가 가지고 나가거라.”

<아니리>

별주부가 화상(畫像)을 받아들고,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 안 묻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한 피를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빼고 목덜미에다 화상을 턱 붙여 놓고 목을 움츠리며,

‘자아, 이만하면 수로(水路)¹⁰⁾ 만리를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제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주부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못 가게 만류를 하시는데,

<진양>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 하러 가려느냐? 삼대독자(三代獨子) 너 아니냐. 장탄식(長歎息)¹¹⁾ 병

1) 따뜻한 봄날에 온갖 생물이 나서 자라 흐드러짐.
2) 꽃나무 숲.
3) 몹시 추운 대한 날씨.
4) 눈과 함께 휘몰아치는 차고 매서운 바람.
5) 바람을 막음.
6) 약간 휘어져 굽음.
7) 버드나무.
8) 그림 속의 토끼
9) 아미산의 절반이나 둥근 가을 달 속의 토끼구나. - 이백(李白), ‘아미산월가(峨眉山月歌)’.
10) 물길.
11) 길게 한숨을 내쉬며 깊이 탄식함.

(病)이 든들, 뉘 알뜰히 구완하며, 네 몸이 죽어져서 오연(烏鳶)¹²⁾의 밥이 된들, 뉘라 손뼉을 두드리며 휘어 쳐 날려줄 이가 뉘 있더란 말이냐?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이라 하는 데는 수중(水中) 인갑(鱗甲)¹³⁾이 얼른 하면 잡기로만 위주(爲主)¹⁴⁾를 한다. 옛날에 너의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십리 사장(沙場)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다.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네가 세상에 가지마는,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입(危邦不入)¹⁵⁾이니 가지를 마라.”

<아니리>

별주부 여쭙오되,
“나라에 환후(患候)가 계옵서,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風波)¹⁶⁾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이 하는 말이,
“내 자식 충심(忠心)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마는,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네 지기(志氣)¹⁷⁾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를 하였구나. 네 충심이 그러할진대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堂上)¹⁸⁾의 백발 모친 기체(氣體)¹⁹⁾ 평안 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소.”

<창조>

별주부 마누라가 울며불며 아장거리고 나오

12) 까막솔개.
13) 비늘과 껍데기. 물고기와 조개를 비유한 말.
14) 으뜸으로 삼음.
15) 위방불입난방불거(危邦不入 亂邦不居), 멸망할 듯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정치와 풍속이 어지러운 나라에는 머무르지 않음
16)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
17) 의지와 기개
18) 대청 위.
19) 몸과 마음의 형편

더니,

<중중모리>

“여보 나리, 여보 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위수파광(渭水波光)¹⁾ 깊은 물에 양주(兩主)²⁾ 마주 떠 맛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당상 학발(鶴髮)³⁾ 늙은 모친 조석(朝夕) 공대(恭待)⁴⁾를 못 잊어요? 군신유의(君臣有義) 장한 충성 조정사직(朝廷社稷)을 못 잊어요? 규중(閩中)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節行志事)⁵⁾ 못 잊어요?”

<아니리>

“그 말은 방불(彷彿)⁶⁾하나 뒷집 털 발 남생이가 흠일세.”

총총히 작별 후에 수정문(水晶門)⁷⁾ 밖 씩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데, 경치가 장(壯)히⁸⁾ 좋던 것이었다.

<자진중모리>

아래 - 단가(短歌) ‘고고천변(皐皐天邊)’

고고천변일륜홍(皐皐天邊日輪紅) 부상(扶桑)에 높이 떠,⁹⁾

양곡(陽谷)에 잦은 안개 월봉(月峯)으로 돌고 돌아,¹⁰⁾

예장촌(豫章村) 안개 짙고 회안봉(回雁峰) 구름이 떴구나.¹¹⁾

1) 위수의 반쩍거리는 물.
2) 바깥주인과 안주인. 부부.
3) 두루미의 깃처럼 하얗게 센 머리.
4) 공손하게 대접함.
5) 절개를 지키는 일.
6) 거의 비슷함.
7) 수정궁의 문.
8) 매우
9) 동틀 무렵 하늘가의 붉은 해가 동쪽 하늘에 높이 떠서,
10) 해 뜰는 골짜기의 잦은 안개, 달 뜨는 봉우리로 돌고,
11) 예장촌에 안개 짙고, 회안봉에 구름 모였구나. (‘예장촌’, ‘회안봉’은 모두 중국의 지명)

노화(蘆花)난다 눈 되고, 부평(浮萍)은 물에 등실,¹²⁾ 어룡(魚龍)은 잠자고 자고새 훨훨 날아든다.¹³⁾

동정여천(洞庭如天)에 파시추(波始秋),¹⁴⁾

금색 추파(金色秋波)가 여기라.¹⁵⁾

앞발로 벽파(碧波)를 짝어 당겨, 뒷발로 창랑(滄浪)을 탕탕(滄浪)¹⁶⁾

요리조리 저리요리 앙금 등실 떠 사면(四面)을 바라보니,¹⁷⁾

지광(地廣)은 칠백 리요 파광(波光)은 천일색(天一色)인데,¹⁸⁾

천외무산십이봉(天外巫山十二峰)은 구름 밖으로 가 멀고,¹⁹⁾

해외소상(海外蕭湘)은 일천 리 눈앞에 경(景)이라.²⁰⁾ 오초(吳楚)는 어이하어 동남으로 벌여있고,²¹⁾

건곤(乾坤)은 어이하어 일야(日夜)에 등실 떠,²²⁾

남훈전(南薰殿) 달 밝은데 오현금(五絃琴)도 끊어 지고,²³⁾

낙포(洛浦)로 등등 가는 저 배,²⁴⁾

조각달 무관수(武關囚)의 초회왕(楚懷王)의 원혼이요,²⁵⁾

모래 속에 가 장신(藏身)하야 천봉만학(千峰萬壑)을 바라보니,²⁶⁾

12) 갈대꽃이 눈처럼 희게 날리고, 물풀은 물에 등실.
13) 물고기는 잠자고 매추라기 훨훨 날아든다.
14) 하늘처럼 넓고 맑은 동정호의 물결이 비로소 가을을 이르니,
15) 가을바람 소리와 가을 물결이 여기로구나.
16) 앞발로 푸른 파도를 짝어 당기고, 뒷발로는 푸른 물결을 탕탕 치니,
17) 요리조리 조리요리 엉금엉금 떠 온 사방을 바라보니,
18) 땅의 넓이는 칠백 리요, 물빛은 하늘과 같은데,
19) 하늘 밖의 무산 열두 봉우리 구름 밖으로 간 듯 멀어졌고, (‘무산’은 중국의 산)
20) 물 밖의 소상강 일천 리 경치가 눈앞에서 아름답구나.
21) 오나라 초나라 동남으로 터져 있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떠 있구나. - 두보(杜甫)의 ‘등악양루(登岳陽樓)’, 吳楚東南坼(오초동남택) 乾坤日夜浮(건곤일야부).
22) 하늘과 땅은 어이하어 달밤에 등실 떠서.
23) 남훈전에는 달 밝은데, 오현금 줄 끊어지고, (‘남훈전’은 순임금이 살았다는 궁전, ‘오현금’은 순임금이 만 들었다는 줄이 다섯 개 있는 현악기)
24) 낙포로 떠 가는 저 배는, (‘낙포’는 낙양 근처의 포구인데, 무관에서 하루 이틀 거리)
25) 무관에 갇힌 초회왕의 원혼이요, (초나라의 회왕은 진나라의 소왕이 무관에서 만나자는 말에 속아 그곳으로 갔다가 무관에 갇혀 원통하게 죽음.)
26) 모래 속에 숨어 여러 큰 산 깊은 골짜기 바라보니.

만경대(萬景臺) 구름 속 학선(鶴仙)이 울어 있고,¹⁾
 칠보산(七寶山) 비로봉(祕盧峰)은 허공에 솟아,
 계산파무울차아(稽山罷霧鬱嵯峨) 산은 칭칭 높고,²⁾
 경수무풍야자파(鏡水無風也自波) 물은 풍풍 깊고,³⁾
 만산(萬山)은 우루루루루, 국화는 점점(點點), 낙
 화(落花)는 동동, 장송(長松)은 낙낙(落落).⁴⁾
 늘어진 잡목(雜木), 평퍼진 떡갈, 다래 몽둥, 칩녕
 클.⁵⁾
 머루 다래, 어름 년출, 능수버들, 벗나무, 오미자,
 치자, 감자(柑子)⁶⁾, 대추,
 갖은 과목(果木)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 칭칭
 감겼다.⁷⁾
 어선(魚船)은 돌아들고, 백구(白鷗)는 분비(奔飛)⁸⁾
 갈매기, 해오리⁹⁾, 목파리¹⁰⁾, 원앙새, 강상(江上) 두
 루미, 수많은 떼 고니,
 소호천자(少昊天子) 기관(紀官)하던 만수문전(萬壽
 門前)의 봉황새,¹¹⁾
 양양창파(洋洋滄波)¹²⁾ 점점 사랑한다고 원앙새,
 칠월 칠석 은하수 다리 놓던 오작(烏鵲)이
 목파리, 해오리, 너새¹³⁾, 진검새¹⁴⁾, 아옥따옥이 날아
 들 제
 또 한 경개(景概)를 바라보니
 치어다보니 만학천봉(萬壑千峰)이요,¹⁵⁾

1) 만경대의 구름 속에서 학을 탄 신선이 울고 있고,
 2) 계산의 안개가 걸히니 산이 더욱 높아 보이고,
 3) 거울같이 맑은 수면은 바람 없이도 절로 출렁이네. 稽山 罷霧鬱嵯峨(계산파무울차아) 鏡水無風也自波(경수무풍야자파) - 하지장(賀知章)의 '채련곡(採蓮曲)'
 4) 모든 산은 우르르, 국화꽃은 점점이 피어 있고, 낙화는 동동 떠 가며 큰 소나무 늘어졌네.
 5) 늘어진 잡목, 평퍼짐한 떡갈나무, 몽뚝한 다래나무, 칩녕클.
 6) 홍갈나무.
 7) 갖은 과일나무 엉클어지고 뒤틀어지고 구부러져 칭칭 감겼다.
 8) 고깃배는 돌아들고, 갈매기는 이리저리 날고
 9) 해오라기.
 10) 메추라기.
 11) 소호천자(少昊天子)가 새 이름을 붙이던, 태평한 시절에 궁성 앞으로 날아들던 봉황새 ('소호천자'는 중국 황제 현원씨 만아들. '만수문'은 천 년 만 년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의 문.)
 12) 넓고 넓은 바다 점점이 떠서 사랑한다던 원앙새. '양양창파점점동(洋洋滄波點點動)'에서 나온 말.
 13) 기러기.
 14) 물수리.

내려 굽어보니 백사지(白沙地)지로구나.¹⁶⁾
 에구부러진 늙은 장송(長松) 광풍(狂風)¹⁷⁾을 못 이
 기여 우줄우줄 춤을 출 제,
 원산(遠山)은 암암(暗暗), 근산(近山)은 중중(重
 重)¹⁸⁾, 기암은 촉촉(矗矗)
 뫼산이 울어, 시내 유수(流水)는 청산(靑山)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 저 골 물이 팔팔
 열에 열두 골 물이 한 데로 합수(合水)져,¹⁹⁾
 천방(天方)져, 지방(地方)져, 월(越) 턱져, 구부러져,
 방울이 버름져,²⁰⁾
 건너 병풍석(屏風石)²¹⁾에다 마주 광광 마주 때려
 대해수중(大海水中)으로 흘러가느라고,²²⁾
 버름이 북적 물너울이 뒤뚱 어루루루 꺾꺾
 뒤뚱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메로 가잔 말
 아마도 예로구나, 요런 경개가 또 있다.
 아마도 예로구나, 요런 경개가 또 있다.

<아니리>

그때에 별주부는 음침경(陰沈境)²³⁾에 기어올
 라 사면을 살펴보니, 온갖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上座)²⁴⁾ 다툼을 하는데 가관이였다.
 봉황새 척 나 앉으며

<단중모리>

"너희 내 말을 들어봐라. 순(舜)임금 남훈전
 (南薰殿)에 오현금(五絃琴) 가지시고 소소구성
 (簫韶九成)²⁵⁾ 노래할 제, 기산(岐山) 높은 봉
 (峰) 아침별에 내가 가서 울음을 우니, 팔백 년

15) 올려다보니 천 봉우리 만 계곡이요.
 16) 내려 굽어보니 흰 모래사장이로구나.
 17)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사납게 부는 바람.
 18) 먼 산은 깊고, 가까운 산은 포개지고, 기이한 암석은 뺨뺨이 들어섰고
 19) 열에 열두 골짜기 물이 한 곳으로 물이 모아져.
 20)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턱을 넘어 굽이쳐, 방울이 거품이 되어.
 21) 병풍처럼 세워진 넓적한 돌.
 22) 큰바다 물 가운데로 흘러가느라고.
 23) 으스스한 곳.
 24) 가장 높은 사람이 앉도록 정면에 설치한 자리.
 25) '소소'는 순임금의 음악. 이것을 아홉 번 연주함.

문물이 울울(鬱鬱)¹⁾하여 주문무(周文武)²⁾ 나
계시고, 만고대성(萬古大聖)³⁾ 공부자(孔夫子)⁴⁾
도 내 앞에서 탄생하니, 천 길이나 높이 날아
기불탁속(飢不啄粟)⁵⁾ 하여 있고, 용문산(龍門
山) 석산오동(石山梧桐)⁶⁾ 기염기염(氣焰氣
焰)⁷⁾ 기어올라 소상오죽(蕭湘烏竹)⁸⁾ 좋은 열
매 내 양식을 삼았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
냐?”

<아니리>

까마귀 꾸짖어 왈,
“너는 대가리 크고 털 털수룩한 놈이 어디로
상좌(上座) 한단 말이나?”
봉황새 꾸짖어 왈,
“너는 전신(全身)에 흰점 없고, 두 눈이 검은
창뿐인 놈이 어디로 상좌한단 말이나?”
까마귀 왈,

<엇중모리>

“내 근본 들어라. 이 내 근본을 들어봐라. 이
주둥이 길기는 월왕(越王) 구천(句踐)⁹⁾이 방불
(彷彿)하고, 이 몸이 검기는 산음(山陰) 땅 지
나다가 왕희지(王羲之) 세연지(洗硯池)¹⁰⁾ 풍덩
빠져 먹물 들어 이 몸이 검어 있고, 은하수 삼
생(三生) 후에 그물에 다리를 놓아 견우직녀
건너 주고 오는 길에, 적벽강(赤壁江) 선유(船

1) 아주 답답함.
2)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3) 오랜 세월 큰 성인.
4) 공자.
5) 봉정만리 기불탁속(鵬程萬里 飢不啄粟)’이라는 구절
에서 따왔다. ‘큰 새는 먼 길을 날아가는 도중에 아
무리 배가 고파도 좁쌀은 쪼아 먹지 않는다’
6) 자갈밭에서 자란 오동나무. 아주 단단하다고 함.
7)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
8)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인 아황과 여영이
순임금을 잃고 상강(湘江)에서 피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뿌린 눈물이 스며들어 얼룩이 된 대나무.
9) 춘추시대 월(越)나라의 왕으로 오왕 합려와 싸워
그를 죽였고 부차에게 패했으나, 부차를 꺾어 자살
하게 함.
10) 왕희지가 물빛이 검게 변할 정도로 붓과 벼루를
씻으며 글씨 연습을 하며 보냈던 곳.

遊)¹¹⁾할 제, 남비(南飛)¹²⁾ 등등 떠 삼국 흥망을
의논할 제, 천하에 반포은(反哺恩)¹³⁾을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에 비금주수(飛禽走獸)¹⁴⁾ 효자는
나뿐인가. 아, 아이고, 설움이야. 허허, 으, 아이
고, 설움이야. 에에, 이이이, 설움이야.”

<자진모리>

부엉이 허허 웃고,
“네 암만 그런데도, 네 심정 불측(不測)¹⁵⁾하여
열두 가지 울음을 울어, 과붓집 나무 앉아 울음
을 울어 동요(動搖)¹⁶⁾할 제, 까옥까옥 도락도락
괴이한 음성으로 수절(守節)¹⁷⁾ 과부 유인할 제,
네 소리 짹짹 나면 세상 인간이 미워라 돌을
들어 날리며, 너 날자 배 떨어지니 세상에 미운
놈은 너밖에 또 있느냐? 빈터에나 찾아가지. 이
좌석(坐席)은 불길(不吉)하다.”

<아니리>

“내 모양이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만좌중(滿座中)¹⁸⁾에 내 망신을 이다지도 시킨단
말이오?”
이때 별주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온갖 길짐
승들이 모여앉아 상좌 다툼을 하는데 가관이었
다.

<중모리>

공부자(孔夫子) 작춘추(作春秋)¹⁹⁾에 절필(絶
筆)²⁰⁾하던 기린(麒麟)이며, 삼군(三軍)²¹⁾, 삼영
(三營)²²⁾ 거동시(舉動時)에 천자옥련(天下玉

11) 뱃놀이.
12) 남쪽으로 날아감.
13)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함
14) 날짐승과 길짐승.
15) 미리 헤아릴 수 없음.
16) 생각이나 처지가 흔들림.
17) 정절(貞節)을 지킴.
18) 자리에 가득 앉은 사람들.
19) 공자가 역사서인 춘추를 지음.
20) 붓을 놓고 다시는 글을 안 씀.
21) 좌익(左翼), 중익(中翼), 우익(右翼).
22)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
廳)

輦¹⁾의 코끼리며, 옥경선관(玉京仙官)²⁾ 승필(乘匹)³⁾하던 풍채 좋은 사자로다. 서백(西伯)⁴⁾이 위수(渭水) 사냥할 제 비웅비표(飛熊雄飛豹)⁵⁾ 꿈이로다.

창해박랑사(滄海博浪沙)에 저격시황(狙擊始皇)⁶⁾의 저 다람쥐,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⁷⁾에 슬피 운다고 저 잔나비, 피 많은 여우, 날랜 토끼털, 좋은 너구리며, 암곰, 수곰, 멧돼지, 노루, 사슴, 승냥이, 이러한 동물들이 앙금 내려와서 상좌 다툼을 하는구나.

<아니리>

“자, 우리가 연년(年年)⁸⁾이 회취(會聚)⁹⁾하고 노는 노름에 상좌 없이는 못 놀겠네. 그러니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놀음이 어떠하냐?”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獐都監)¹⁰⁾은 언제 났소?”

노루란 놈이 좋아라고,

<단중모리>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내 나이를 헐 작시면, 기경상천(騎鯨上天)¹¹⁾ 이태백(李太白)이 나와 둘이 동접(同接)¹²⁾하여 광산십년(匡山十年)¹³⁾ 글을 읽다, 태백은 인재(人才)로서 옥경(玉京)¹⁴⁾으로 상천(上天)하고, 나는 미물(微物) 짐승이라, 이리 천(賤)케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年甲)¹⁵⁾이 되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1) 천자가 타던 가마.
2) 하늘의 신선.
3) 타고 다님.
4) 주 문왕.
5) 나는 꿈과 나는 표범.
6) 창해가 박사랑에서 진시황을 암살하고자 할 때의.
7)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는데, 밤에 잔나비 소리만 나네. - 이백(李白)의 ‘양양가(襄陽歌)’
8) 해마다.
9) 여러 사람이 한곳에 많이 모임.
10) ‘장’은 노루. ‘도감’은 훈련도감의 장수.
11) 고래를 타고 하늘을 오름.
12) 같은 곳에서 학업을 닦음.
13) 이백이 10년간 공부했던 대광산(大匡山).
14)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는 가상적인 서울.
15) 어떤 범위에 속하는 나이.

달과총(獼把摠)¹⁶⁾ 너구리가 나 앉으며,
“장도감도 내 아래요.”

“달과총은 언제 났소?”

“나의 수작(酬酌)¹⁷⁾ 들어보소. 동작대(銅雀臺) 지은 집에 좌편 청룡각(靑龍閣)이요, 우편은 금봉루(金鳳樓)라. 이교(二喬)¹⁸⁾에 뜻을 두고, 조자건(曹子建)¹⁹⁾이 글을 지어, 동작대(銅雀臺) 부운(浮雲)²⁰⁾하던 조맹덕(曹孟德)²¹⁾이 연갑(年甲)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아니리>

토끼란 놈이 깡충 뛰어 나왔더니마는,

<중중모리>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봐. 한(漢) 광무(光武)²²⁾ 시절에 간의대부(諫議大夫)²³⁾를 마다하고 부운(浮雲)으로 차일(遮日) 삼고 동강(桐江)의 칠리탄(七里灘) 낚시줄을 감아 놓고 고기 낚기 힘써 하던 엄자릉(嚴子陵)²⁴⁾에 시주(詩酒)²⁵⁾하고, 나와 둘이 동갑이니, 내가 상좌를 못 하겠나?”

<아니리>

멧돼지란 놈이 꺼시렁²⁶⁾ 눈썹을 꺾적 꺾적하

16) ‘달’은 수달. ‘과총’은 각 군영에 둔 종사품 무관 벼슬.
17) 말을 주고받음.
18) ‘이교’는 중국 삼국시대에, 재색을 겸비했던 오나라의 대교(大喬)와 소교(小喬) 자매. 대교는 손책(孫策)의, 소교는 주유의 아내가 되었는데, 제갈량이 주유에게 말하기를, 조조는 강동의 이교(二喬)를 빼앗아와 동작대에 두고 만년을 즐기려는 꿈을 꾸고 있다고 함. 이 이야기에 주유가 격분하여, 조조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게 됨.
19) 조식(曹植). 조조의 셋째 아들이자 위무제 조비의 아우.
20) 뜬구름처럼 떠돌아다님.
21) 조조(曹操).
22) 중국 후한의 초대 황제.
23) 조정의 정치를 옳고 그름을 황제에게 지적하여 간하던 벼슬아치.
24) 후한 광무제 때 은일 처사인 엄광(嚴光). 벼슬을 싫다 하고 부춘산에서 밭 갈고 칠리탄에서 낚시질 하며 살았음.
25) 술을 마시며 시를 읊음.

고 나 앉더니마는

<중모리>

“나의 연세(年歲)를 들어보소.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 갔다 충의(忠義) 충절(忠節) 십구 년에 수발(鬚髮)¹⁾이 진백(盡白)²⁾하여 고국산천 험한 길로 허위허위 돌아오던 소중랑(蘇中郎)³⁾의 연갑(年甲)이니 내가 상좌를 못하겠나?”

<아니리>

이리 한참 노닐 적에, 별주부는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퇴생원(兎生員)⁴⁾이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만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뻗뻗하여 토자(兎字)를 호자(虎字)로 붙여 한번 불러 보는데,

<창조>

“저기 주둥이 벌건하고 얼송덜송한 게 퇴퇴퇴 호생원(虎生員) 아니오?”

하고, 불러보니 첩첩산중(疊疊山中)에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데,

<엇모리>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松林)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쪽 찢어지고, 몸은 얼쭈덜쭈,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앞다리, 전동(箭

26) 가시처럼 얇게 터져 일어나는 부분.

1) 머리와 수염.

2) 하얗게 됨.

3) 한나라의 소무. 흉노가 사신으로 간 소무를 숨겨놓고 죽었다고 하자, 한의 사자가 기러기 발에 묶인 편지에 ‘소무가 어느 작은 연못가에 살고 있다.’라고 쓰여 있더라고 하니, 흉노가 그를 보내주었다고 함.

4) ‘퇴’는 토끼. ‘생원’은 원래 소과 종장(小科終場)에 합격한 사람이라,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성 뒤에 붙여 불렀음.

筒)⁵⁾ 같은 뒷다리, 새 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嚴冬雪寒) 백설(白雪)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르 헤치고, 주홍 입 짝 벌리고, 자라 앞에서 우뚝 서 흥행흥행 하는 소리, 산천이 뒤덮고 땅이 툭 꺼지는 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츠리고 가만히 엎어졌을 때,

<아니리>

호랑이가 내려와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 둥글 납작이나?”

하고 불러보니, 아무 대답이 없으니,

“아마 이게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萬病通治)⁶⁾ 약이라 하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콧아 쪼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 부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通姓名)⁷⁾합시다.”

호랑이 깜짝 놀라,

“이크.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名色)⁸⁾이 무엇인고?”

“예. 저는 수국 전옥주부(典獄主簿)⁹⁾ 공신(功臣) 사대손(四代孫) 별주부 자라라 하오.”

호랑이가 자라란 말을 듣고 한번 놀아 보는데,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내 평생 원(願)하기를 왕배탕¹⁰⁾이 원(願)일러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좋은 진미(眞味)를 비워 먹어 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5) 화살통.

6) 한 가지 약이 여러 가지 병을 모두 고칠 수 있음.

7)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성과 이름을 알려 줌.

8) 실속 없이 그럴듯하게 불리는 허울만 좋은 이름.

9) 전옥을 지키는 주부, ‘전옥’은 죄인을 가두던 감옥.

10) 자라탕.

“아이고. 나 자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요.”

“네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萬病回春)¹⁾ 명약(名藥)이라. 두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르르, 어흥.”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急煞)²⁾ 맞을 것이 동의보감(東醫寶鑑)³⁾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아니리>

별주부가 한 피를 얼른 내고, 목을 길게 빼어 호랑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 나가오. 목 나가.”

호랑이 깜짝 놀라,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가는 하루 일천오백 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그마한 분이 목이 들랑날랑 뒤움치기⁴⁾를 잘하시오?”

“오, 이놈. 내 목 내력(來歷)⁵⁾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휘모리>

“우리 수국(水國) 퇴락(頽落)⁶⁾하여 천여 칸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칠컹 떨어져 이 병신이 되었으니, 명의(名醫)더러 물은즉, 호랑이 쓸개가 좋다 하기로, 도령귀신⁷⁾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 봉 못 주겠나? 도령귀신 게 있느냐? 비수(匕首) 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1) 모든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됨.
2) 갑자기 닥쳐오는 액운.
3) 조선 시대에, 의관(醫官)인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의서(醫書).
4) 몹시 움츠리기.
5) 꺾어온 자취.
6) 무너지고 떨어짐.
7) 몽달귀. 총각이 죽어서 된 귀신.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도리랑 도리랑⁸⁾,

<아니리>

호랑이 거시기를 꼭 물고 뺨뺨 돌아 노니, 어찌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압록강까지를 도망을 했겠다.

거기서 저 혼자 장담하는 말이,

“아따,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나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영락없이 죽었을 것이다.”

그때에 별주부는 호랑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의 영물(靈物)⁹⁾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대 목욕재계(沐浴齋戒)¹⁰⁾ 정(淨)히 하고 산신제(山神祭)¹¹⁾를 한번 지내는데,

<진양>

계변양류(溪邊楊柳)¹²⁾ 늘어진 반송(盤松)¹³⁾ 가지를 앞으로 작각¹⁴⁾ 꺾어내어 진토(塵土)¹⁵⁾를 쓸어 버리고, 암상(巖上)¹⁶⁾으로 제상(祭床) 삼고, 낙엽으로 면지(面紙)¹⁷⁾를 깔고, 산과(山果) 목실(木實)¹⁸⁾을 주워다가 방위(方位) 가려서 갈라놓고, 은어 한 마리 잡아내어 어동육서(魚東肉西)¹⁹⁾로 받쳐놓고 석하(石下)에 배례(拜禮)²⁰⁾ 하여 지성으로 독축(讀祝)²¹⁾을 한다.

<축문>

8) ‘도령’을 넣어 발음한 것.
9) 신령스러운 물건이나 짐승.
10) 부정(不淨)을 타지 않도록 목욕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일.
11) 산신령에게 지내는 제사.
12) 계곡 옆의 버드나무.
13)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14) 의성어.
15) 티끌과 흙.
16) 바위 위.
17) 위패에 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리는 오색지.
18) 산 과일과 나무 열매.
19) 제사상을 차릴 때, 생선을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는 일.
20) 절을 하여 예를 나타냄.
21) 축문이나 제문을 읽음.

유세차(維歲次)¹⁾ 갑신(甲申) 유월 갑신삭(甲申朔) 임자(壬子) 초칠 일, 남해 수궁 별주부 자라 감소고우(敢昭告于)²⁾ 상천일월성신(上天日月星辰)³⁾ 후토명산(後土名山)⁴⁾ 신령전(神靈前) 지성으로 비나이다. 용왕이 우연 득병(得病)⁵⁾하여 선의(仙醫)도사 문병 후에 토끼 간이 낫사오니, 중산(中山) 토끼 한 마리를 허급(許給)⁶⁾ 하옵심을 상사상향(常事尙饗).⁷⁾

<아니리>

빌기를 다한 후에,

<중중모리>

한곳을 바라보니 묘한 짐승이 앉았네, 두 귀를 쫓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꼬맹이 뭉뚝, 좌편 청산(靑山)이요, 우편은 녹수(綠水)인데, 녹수청산에 애굽은 장송(長松), 휘늘어진 양류(楊柳) 속 들랑날랑 오락가락 엉거주춤 가는 토끼, 산중토(山中兎), 월중토(月中兎).

자라가 보고서 괴이 여겨 화상(畫像)을 보고 토끼를 보니, 분명한 토끼라. 보고서 반겨 여겨 “저기 쫓는 게 퇴생원 아니오?”

토끼가 듣고서 좋아라고 짱충 뛰어나오면서,

아래 - 경기민요, ‘창부타령(倡夫打令)’

거, 뉘가 날 찾나?

날 찾을 리가 없겠마는, 거 누구가 날 찾아?

기산영수(箕山潁水) 별건곤(別乾坤) 소부허유(巢父許由) 날 찾나.⁸⁾

1) ‘이 해의 차례는’의 뜻으로, 제문(祭文)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2) 제문의 첫머리에서 흔히 쓰는 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
3)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4) 명산에 있는 땅의 신.
5) 병을 얻음.
6) 해 달라는 대로 허가하여 베풀어 줌.
7) 적지만 흠향하옵소서.
8) 기산 영수 경치 좋은 곳에서 소부, 허유가 날 찾나. (요임금을 벼슬을 맡아달라고 하자 허유는 거절하고 귀를 시냇물에 씻었고, 소부는 그 귀 씻은 물이 더럽다 하여 상류로 올라가 소에게 물을 먹었다고 함.)

수양산(首陽山) 백이숙제(伯夷叔齊) 채미(采薇)⁹⁾하 자고 날 찾나.

백화심처일승귀(百花深處一僧歸) 춘풍석교화림중(春風石橋花林中)¹⁰⁾

성진화상(性眞和尚)¹¹⁾이 날 찾나.

완월장취(玩月長醉) 강남 태백(太白)¹²⁾

기경상천(騎鯨上天) 험한 길 함께 가자고 날 찾나.¹³⁾

도화유수무릉(桃花流水武陵) 어주속객(魚舟屬客)이 날 찾나.¹⁴⁾

청산기주(靑山夔州) 백로탄(白鷺灘) 여동빈(呂洞賓)이 날 찾나.¹⁵⁾

차산중운심(此山中雲沈)한데 부지처(不知處) 오신 손님,¹⁶⁾

날 찾을 이 만무(萬無)로구나.

거 누가 날 찾나.

건넛산 색시 토끼가 연분(緣分)을 맺자고 날 찾나.

요리로 깡충, 저리로 깡충, 가우똥거리고 내려온다.

<아니리>

이리 한참 내려오다가 별주부하고 후다닥 들어 받았겠다.

“아이고, 코야. 아이고, 이마빡이야. 어어, 초면(初面)¹⁷⁾에 남의 이마빡은 왜 이렇게 받으시

9) 수양산의 백이 숙제 고사리를 캐자고 나를 찾나. (‘백이’와 ‘숙제’는 중국 주(周)나라의 전설적인 형제 성인(聖人)으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하자, 신하가 천자를 토벌한다고 반대하며 주나라의 곡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함.)
10) 온갖 꽃이 만발한 곳으로 한 스님이 돌아오는지라, 꽃수풀 속 봄바람에 돌다리에
11) 성진 스님이 날 찾나. (‘성진’은 소설 구운몽의 주인공.)
12) 달을 벗 삼아 술에 오래도록 취했던 이태백이
13) 고래 타고 하늘 가는 험한 길로 같이 가자 나를 찾나.
14) 경치 좋은 곳에서 고깃배 손님이 날 찾나.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園記)’).
15) 당나라 때 여동빈이 과거에 거둬 낙방하자 경치가 좋았던 물가인 ‘청산기주’와 ‘백로탄’에서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았다는 고사.
16) 저 산 가운데 구름 깊어 어딘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신 손님

오.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렇시다.”

“게서는 뉘라 하시오?”

“예,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게 손은 뉘라 하오?”

“예, 나는 세상에서 이음양순사시(理陰陽順四時)¹⁾하던 예부상서(禮部尙書) 월토(月兔) 일러니, 선약주(仙藥酒)²⁾ 대취(大醉)하여 장생약(長生藥)³⁾ 그릇 찡고 적하중산(謫下中山)⁴⁾하여 머무른 지 오래러니, 세상에서 부르기를 명색이 퇴선생이라 부르오.”

별주부 듣고 함소(含笑)⁵⁾ 왈,

“퇴선생 높은 이름 들은 지 오래러니, 오늘날 상봉하기는 하생견지만만(何相見之晚晚)이요, 무고불측(無故不測)⁶⁾이로소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잘났소. 잘났어. 진세(塵世)에서 몰라 그렇지, 우리 수국을 들어가면 훈련대장은 꼭 하실 것이오. 미인미색(美人美色)⁷⁾을 밤낮으로 데리고 동락(同樂)을 할 것이니 그 아니 좋소. 그러나 퇴선생은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으시오?”

“뉘, 나 지내는 재미는 무상(無常)⁸⁾이지요마는 세상 흥미를 한번 이를 테니 들어 보시오.”

<중모리>

임자 없는 녹수청산(綠水靑山) 일모황혼(日暮黃昏)⁹⁾ 저문 날에 월출동령(月出東嶺)¹⁰⁾의 잠을 깨어 청림벽계(靑林碧溪) 집을 삼고, 값이 없는 산과 목실(木實) 양식을 삼아서 감식(甘食)¹¹⁾할 제, 신여부운(身如浮雲)¹²⁾ 일이 없어 명

17) 처음 대하는 처지.

1) 음양의 이치로 네 계절에 순응함.

2) 신선이 먹는 약술.

3)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약.

4) 산 가운데로 귀양을 내려옴.

5) 웃음을 머금음.

6) 언제 만나볼지 아무래도 예측하기 어렵더니.

7) 아름다운 여인들.

8) 모든 것이 덧없음.

9) 해지는 저녁 무렵.

10) 달이 동쪽에 있는 고개에서 떠오름.

11) 맛있게 먹음.

산 찾아 완경(玩景)¹³⁾할 제,

여산동남(廬山東南) 오로봉(五老峰)¹⁴⁾과 진국명산(鎭國名山) 만장봉(萬丈峰)¹⁵⁾과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洲), 삼산(三山)이며, 태산(泰山), 숭산(嵩山), 여산(廬山), 항산(恒山)¹⁶⁾, 만학천봉(萬壑千峰), 구월섬곡(九月蟾谷), 삼각계룡(三角鷄龍), 금강산(金剛山), 아미산(峨眉山), 수양산(首陽山)을 아니 본 곳 없이 모두 놓고,

영주(瀛洲) 삼산(三山)이며, 완완(緩緩)¹⁷⁾히 기어올라 흑운(黑雲)을 박차고 백운(白雲)을 무릅쓰고, 여산(廬山) 낙조경(落照景)¹⁸⁾과 위국(魏國)의 일출경(日出景)을 완완히 세밀(細密)¹⁹⁾하니, 등태산소천하(登泰山小天下)²⁰⁾의 공부자(孔夫子)의 대관(大觀)²¹⁾인들 이에서 더 하더란 말이냐.

밤이면은 완월(玩月)²²⁾ 구경, 낮이 되면 유산(遊山)²³⁾할 제, 이따금 심심하면 적송자(赤松子)²⁴⁾ 안기생(安期生)을²⁵⁾ 종아리 때리고, 강산풍경(江山風景) 흥미간(興味間)에 지상신선(地上仙人)이 나뿐인가.

<아니리>

“아닌 게 아니라, 잘 지내시오. 당신은 발 뭍

12) 몸이 뜬구름 같음.

13) 풍경을 즐김.

14) 廬山東南五老峰(여산동남오로봉) 靑天削出金芙蓉(청천삭출금부용), 여산 동남쪽 오로봉은 푸른 하늘에 깎여 솟아 있는 연꽃 같네. - 이백의 ‘등여산오로봉(登廬山五老峰)’

15) 우리나라 북한산 만장봉.

16) 중국 산악 신앙에 보이는 다섯 산. 동의 태산, 서의 화산(華山), 남의 형산(衡山), 북의 항산, 중부의 숭산(嵩山).

17) 느릿느릿

18) 해지는 풍경.

19) 자세하고 꼼꼼하다.

20) 태산에 올라보고 천하가 좁을 줄을 알게 됨.

21) 크게 바라봄.

22) 달을 구경하며 즐김.

23) 산으로 놀러 다님.

24) 중국 신화시대의 신선으로 우신(雨神)이었음.

25) 진(秦)나라 때 사람으로 약을 팔면서 오래 살았고 봉래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함.

시도 오입쟁이로 생겼거니와, 풍채(風采)가 참 잘 생겼소. 그러나 미간(眉間)에 화망살(火亡煞)¹⁾이 비쳐 이 세상에 있고 보면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 당하겠소.”

“어, 그분 초면에 방정맞은 소리를 하는군. 그 래. 내 모양이 어째서 그렇게 생겼단 말이요.”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자진모리>

“일개(一介)²⁾ 한토(閑兔)³⁾ 그대 신세, 삼춘 구추(三春九秋)⁴⁾를 다 지내고 대한(大寒) 엄동(嚴冬) 설한풍(雪寒風) 만학(萬壑)에 눈 쌓이고, 천봉(千峯)에 바람이 칠 제, 앵무(鸚鵡) 원양(鴛鴦)이 끊어졌네.

화초목실(花草木實)⁵⁾ 없어질 제, 어두한 바 위 밑에 고픈 배 틀어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던진 듯이 앓은 거동, 초희왕(楚懷王)의 원혼(冤魂)⁶⁾이요, 일월고초(日月苦楚)⁷⁾ 북해상(北海上) 소중랑(蘇中郎) 원혼이요,

거의 주려 죽을 토끼 새우등 구부리고 삼동(三冬) 고생을 겨우 지내, 벽도홍행(碧桃紅杏) 춘일월(春二月)⁸⁾에 주린 구복(口腹)⁹⁾을 채우려고 심산중곡(深山重谷)¹⁰⁾을 찾고 찾아 이리저리 지낼 적에,

골골이 묻힌 건 목달개¹¹⁾, 음찰기¹²⁾요, 봉봉(峰峰)이 섰는 건 매 받는 응주(鷹主)¹³⁾로다, 목달개 걸치게 되면, 결항치사(結項致死)¹⁴⁾ 대량대량¹⁵⁾ 제수(祭需)¹⁶⁾ 고기가 될 것이요, 청천

1) 불에 목숨을 잃는 액운.
2) 보잘것없는.
3) 한가한 토끼.
4) 봄의 석 달과 가을의 90일.
5) 꽃과 풀 나무 열매,
6)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7) 매일 겪는 괴로움.
8) 벽도화와 살구꽃 피는 이월의 봄.
9) 먹고살기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는 입과 배.
10) 깊은 산과 깊은 골짜기.
11) 올가미.
12) 덫.
13) 매.
14) 목이 졸려 죽게 됨.
15) ‘대롱대롱’인 듯.

에 뗏는 건 토끼 대가리 덮치려고 우그리고 드는 수리, 기슭으로 휘어들어 물이꾼 사냥개 험산골¹⁷⁾로 기어 올라 퍼긋퍼긋¹⁸⁾ 뛰어갈 제,

토끼 놀라 호드득호드득 추월자¹⁹⁾ 매 놓아라. 해동청, 보라매, 귀뚜리매, 빼지새, 공작, 이마루, 도리당사, 적굴새²⁰⁾, 방울 떨쳐 쪽지 끼고, 수루루루루루루루루루 그대 꺾전 양발로 덩그렇게 집어다가 꼬부랑한 주둥이로 양미간(兩眉間) 골치 대목을 짹짹.”

“허 그분.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더하는데,

“그러면 뉘가 게 있간디요. 산 중등(中等)²¹⁾으로 돌지.”

“중등으로 돌면은 송하(松下)에 숨은 포수 오는 토끼 쏘려고 불 차리는데²²⁾ 도포수(都砲手)²³⁾ 풀감투, 푸삼²⁴⁾을 입고, 상사 배물²⁵⁾에 왜물조총(倭物鳥銃)²⁶⁾ 화약 답사실²⁷⁾을 얼른 넣어, 반달 같은 방아쇠, 고추 같은 불을 얹어 한눈 찡그리고 반만 일어서서, 닫는 토끼 찡그려 보고 꾸르르르르 탕.”

“허, 그분. 방정맞은 소리 말래도.”

점점 더하는데,

“그러면 뉘가 게 있간디요.”

“흰한 들로 내릴 제, 들로 내리면 초동목수(樵童牧插)²⁸⁾ 아이들이 몽둥이 둘러메고 없는 개 투그리고²⁹⁾ 워리두둑 쫓는 양은, 선술³⁰⁾ 먹은 초군(樵軍)³¹⁾이요.

16) 제물(祭物).
17) 그늘진 골짜기
18) ‘힘겹게’인 듯.
19) 짐승을 잡으려고 뒤쫓는 사람.
20) 모두 새의 이름인 듯.
21) 중턱.
22) 화승총에 불을 붙이려는.
23) 포수의 우두머리.
24) 사냥꾼이 짐승을 속이려고 쓴 풀로 만든 감투와 풀을 꼴은 적삼.
25) 상사 배물(?) 베로 만든 화약 주머니.
26) 일본에서 만든 조총.
27) 심지로 쓰는 실.
28) 나무하는 아이와 소먹이는 아이.
29) 잔뜩 버르고.
30) 술청 앞에서 서서 마시는 술.

그대 간장(肝腸) 생각하니, 백등칠일곤궁(白登七日困窮)¹⁾ 한태조(韓太祖) 간장, 층암절벽(層巖絕壁) 석간(石澗)²⁾ 틈으로 기운 없이 올라갈 제, 짧은 꼬리를 살에 껴, 요리 깡충 조리 깡충, 깡충 접동 뛰놀 제, 목구멍 쓴 내 나고 밑구멍 조충 놓으니, 그 아니 팔란(八難)³⁾인가.

팔란 세상 나는 싫네. 조생모사(朝生暮死)⁴⁾ 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뉘 이르며, 무슨 정(情)으로 유산(遊山), 무슨 정으로 완월(玩月), 아까 안기생 적송자 종아리 때렸다는 그런 거짓 부렁이를 뉘 앞에서 내 놓습나.”

<아니리>

토끼가 가만히 듣더니,

“그 말 참 꼭 옳소. 영락없이 그렇소. 그러나 대체 별주부 관상 잘 보시오. 내 세상은 그렇다 하거니와 수궁 흥미(興味)는 어떠하오?”

“우리 수궁 흥미야 좋지요. 수궁 풍경 반겨 듣고 가자 하면 마다할 수 없고, 가자 한들 갈 수 없으니 애당초에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 하면 쇠아들놈⁵⁾이오. 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이를 테니 들어보오.”

<진양>

“우리 수궁 별천지(別天地)라. 천양지간(天壤之間)에 해위최대(海爲最大)⁶⁾하고 만물지중(萬物之中)에 신위최령(神爲最靈)⁷⁾이라. 무변대해(無邊大海)⁸⁾에다 천여 칸 집을 짓고, 유리(琉璃) 기둥, 호박(琥珀) 주초(柱礎)⁹⁾, 주란화각(朱欄畫閣)¹⁰⁾이 반공(半空)¹¹⁾에 솟았는데,

31) 나무꾼.

- 1) 한태조(유방)가 백등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었던 일.
- 2) 돌이 많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내.
- 3) 여덟 가지의 어려움이나 괴로움.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물, 불, 갈, 병란.
- 4) 아침에 나서 저녁에 죽음.
- 5) 은정도 모르고 인정도 없는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
- 6) 천지간에 바다가 제일 크고.
- 7) 만물 가운데는 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더라.
- 8) 바다는 너무나 커서 그 끝을 알 수 없음.
- 9) 주춧돌.

우리 용왕 즉위(卽位)¹²⁾하사 만족귀시(滿族貴示)¹³⁾하고 백성에게 양덕(仰德)¹⁴⁾이라. 앵무병(鸚鵡瓶) 천일주(千日酒)¹⁵⁾와 천빈옥반(千賓玉盤)¹⁶⁾ 담은 안주, 불로초(不老草) 불사약(不死藥)을 취하도록 먹은 후에, 취흥(醉興)이 도도(滔滔)¹⁷⁾할 제, 적벽강(赤壁江) 소자첨(蘇子瞻)¹⁸⁾과 채석강(采石江) 태백(太白) 홍미, 예와서 알았으면 이 세상에 왜 있으리.

채약(採藥)¹⁹⁾하던 진시황(秦始皇)과 구선(求仙)²⁰⁾하던 한무제(漢武帝)도 이런 재미를 알았던들 이 세상에 있을쏜가. 잘난 세상을 다 버리고 퇴서방도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 저 풍골(風骨)²¹⁾에 좋은 벼슬을 할 것이요, 미인미색을 밤낮으로 데리고 만세동락(萬歲同樂)을 할 것이요.”

<아니리>

어떻게 별주부가 말을 잘해 놓았던지, 토끼가 짹 돌렸겠다. 하릴없이²²⁾ 수궁으로 따라가는데

<단중모리>

자라는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충깡충, 원로수변(遠路水邊)²³⁾을 내려갈 제, 건넌 산 바위틈에 여우란 놈이 나 앉으며,

“여봐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나 수궁 간다.”

- 10) 붉은 난간 그림으로 채색한 누각.
- 11) 반 공중
- 12) 임금의 자리에 오름.
- 13) 모든 백성들을 귀하게 봄.
- 14) 백성들이 은혜로워 우러러봄.
- 15) 천 일 동안 담긴 술.
- 16) 천에 하나쯤 귀한 손님에게만 내어놓는 옥으로 된 쟁반.
- 17) 벽찬 감정이나 주흥 따위를 막을 길이 없음.
- 18) 소식(蘇軾). 중국 북송의 문인.
- 19) 약초나 약재를 캐거나 뜯어서 거둠.
- 20) 신선이 되고자 함.
- 21) 풍채와 골격.
- 22) 어쩔 수 없이.
- 23) 물가의 먼길.

“너 수궁은 무엇 하러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벼슬하러 간다.”

“허허 자식. 실없는 놈. 불쌍타, 저 퇴공아. 녹록¹⁾한 네 놈 마음 말려 무엇하라마는,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토사호비(兔死狐悲)²⁾라 하였으니, 너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巖穴)³⁾에 깃들이고, 임천(林泉)에 같이 놀아, 풍월(風月)로 벗을 삼고, 비 오고 안개 낀 날 발자취 서로 찾아 동성(同姓)⁴⁾ 삼아, 동기(同期) 상통(相通)⁵⁾ 일시 이별을 맞았더니 저 지경이 웬일이냐.

옛말을 못 들었나. 칼 잘 쓰는 위인(衛人) 형가(荊軻)⁶⁾ 역수한파(易水寒波)⁷⁾ 슬픈 소리 장사일거(壯士一去) 제 못 왔고⁸⁾, 천추 원한 초희왕도 진무관(秦武關)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를 못하였구나.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수궁이라 하는 데는 한번 가면 다시 못 오느니라. 위방불입 난방불거(危邦不入 亂方不去)⁹⁾하니 수궁 길을 가지 마라.”

<아니리>

“여보시오. 별주부.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뻔했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정말 못가겠소.”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

술이나 들어 보시오. 먹을 데가 있으면 지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데가 있으면 퇴서방을 앞세워 갈 터이니, 내일 아침 더군다나 김포수 날랜 총알 꾸르르르 탕.”

“허. 그 탕 소리는 빼래두. 그분 참. 그렇다고 내 안 갈 리가 있겠소마는 여기서 수궁이 얼마나 되오?”

별주부가 다시 구변(口辯)¹⁰⁾을 내놓는데,

<중모리>

“수궁 천 리 멀다 마소. 맹자(孟子)도 불원천리(不遠千里)¹¹⁾ 양혜왕(梁惠王)을 가 보았고, 위수어부(渭水漁夫) 강태공(姜太公)도 문왕(文王)따라 입주(入周)¹²⁾를 하고, 한기도창촉도난(漢既渡倉蜀道難)¹³⁾은 황명(皇命) 장군 한신(韓信)이도 소하(蕭何)¹⁴⁾ 따라 한중(漢中) 가서 대장단(大將團)¹⁵⁾에 올랐으니, 퇴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가세.”

“그러면은 갑세.”

강상(江上)을 바라보니, 도요 도용¹⁶⁾ 떠 있는 배는 한가한 초강(楚江)¹⁷⁾ 어부¹⁸⁾ 풍월 실으러 가는 배인지, 십 리 장강 벽파상(碧波上)에 왕래를 하던 거룻배인지, 오호상연월(五湖上烟月)¹⁹⁾ 속에 범상공(范相公)²⁰⁾ 놀던 배인지, 동강 칠리탄(七里灘)에 엄자릉(嚴子陵)의 낚싯배지

1) 만만하고 호락호락함.
 2) 토끼가 죽으니 여우가 슬퍼함. 같은 무리의 불행을 슬퍼한다는 뜻.
 3) 석굴.
 4) 성이 같음. 토(兔)와 호(狐)의 유사한 발음을 빗댄 것으로 보임,
 5)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함.
 6) 중국 전국 시대의 자객으로 진시황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함.
 7) 역수의 차가운 파도. 일반적으로 강이나 바다에 차가운 파도가 친다는 뜻.
 8) 風蕭蕭兮易水寒(풍소소혜역수한) 壯士一去兮不復還 (장사 일거혜불부환) 바람은 쓸쓸하게 불고 역수 강물 차가운데, 장사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 형가의 ‘역수가(易水歌)’
 9) 멸망할 듯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정치와 풍속이 어지러운 나라에는 머무르지 않음.

10) 말쑥씨.
 11) 천 리가 멀다 하지 않고.
 12) 주나라 조정에 입시함.
 13) 이미 한나라에 의해 망해버린 촉나라로 돌아가기 어려움.
 14) 중국 전한 때 고조 유방의 재상.
 15) 대장의 무리.
 16) 등등.
 17) 양자강.
 18) 전국 시대 초나라 사람 굴평(屈平). 회왕 때는 모함을 받아, 이소경(離騷經)을 지어 모면하나, 경양왕(頃襄王) 때 다시 귀양을 가게 되자 먹라수에 빠져 죽음.
 19) 안개 자욱하게 낀 오호(五湖)에 달빛이 비치는 밤. 오호는 격호, 조호, 사호, 귀호, 태호.
 20) 전국 시대 월나라의 재상 범려.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 왕 부차를 죽여 원수를 갚게 하였음.

양양창파(洋洋滄波) 노니는데, 쌍쌍 백구가 줄 이어 뗏네.

“소소추풍양안귀(蕭蕭秋風兩雁歸)¹⁾는 슬피 우는 저 기럭아 네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瀟湘)으로 행하느냐, 동정(洞庭)으로 가라느냐? 가지 말고 게 잠깐 머물러 나의 한 말 듣고 가라. 백운 청산 놀던 토끼가 수궁 천 리 내가 들어가더라고 우리 벗님 앵무(鸚鵡)전에 그 말 조금 부디 전하여라.”

잔말을 하고 내려갈 제, 그날사 말고²⁾ 풍일(風日)³⁾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출렁썩에 뒤뚱거려 흘러가네.

<아니리>

그날사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저 물을 보아라.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정말 못가겠다.”

이놈이 따뜻한 양지쪽엘 찾아가서, 그 얼굴을 좋은 반찬 토막 되작거리듯 되작되작하고 귀를 털고 앉았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벼슬하러 가자는데 용깃(龍旗)발 뒷줄 당기듯⁴⁾ 가시는 꼴 이거 아니 끔실스러워서⁵⁾ 못 보겠다.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아라.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물에 가서 동당동당 떠노니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내 그렇다 아니 갈 리 있겠소? 좋은 수가 있소.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잠가 보아 목물⁶⁾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있소?”

“그것은 그리하오.”

이놈이 좋은 피 낸 채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뒷발을 막 잠기려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

1) 쓸쓸하게 양쪽 언덕에서 부는 가을바람.
2) 하필이면 그날.
3) 날씨.
4) 용의 깃발을 매는 뒷줄을 당기는 것처럼 피하여 달아남.
5) 비위를 맞추려고 머리나 허리를 꼬부려서.
6) 팔다리를 뺀고 구부린 사람의 허리 위에서 목까지를 물로 씻는 일.

서 나는 짐승이라. 편전(片箭)⁷⁾살과 같이 우루루루루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꼭 잡고,

<창조>

물속으로 울렁울렁 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잔물 들어가면 병어리 되고, 행여 뱃속에 간 녹을라. 내 등에 가만히 업혀 소상팔경(瀟湘八景) 구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진양>

아래 - 단가(短歌), ‘범피중류(泛彼中流)’

범피중류(泛彼中流) 동덩동덩 떠나간다.⁸⁾

망망한 창해(滄海)이며 탕탕(蕩蕩)한 물결이로구나.⁹⁾ 백빈주(白蘋洲) 갈매기는 홍요안(紅蓼岸)으로 날아 들고,¹⁰⁾

삼상(三湘) 기러기는 한수(漢水)로 돌아든다.¹¹⁾ 요량(嘹亮)한 나는 소리 어적(漁笛)이건마는,¹²⁾ 곡종인불견(曲終人不見)에 수봉(秀峯)만 푸르렀다.¹³⁾

애내성중만고수(欸乃聲中萬古愁)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¹⁴⁾

장사(長沙) 지나가니, 가태부(賈太傅)는 간 곳이 없고,¹⁵⁾

7) 아기사. 8) 물 가운데로 동실동실 떠나간다. 9) 망망한 푸른 바다, 넓고 넓은 물결이로다. 10) 흰 마름꽃이 피어 있는 물가의 갈매기는 붉은 여귀 핀 언덕으로 날아들고. 11) 세상은 한수로 들어든다. (‘삼상’은 동정호 부근의 세 강으로 소상(瀟湘), 자상(資湘), 원상(沅湘). ‘한수’는 양자강의 상류 지역) 12) 맑고 낭랑한 소리 어부들의 피리 소리이건만, 13) 노랫소리 그치지 사람은 간데없고 빼어난 산봉우리만 푸르구나. - 전기(錢起)의 ‘상령고슬시(湘靈鼓瑟詩)’ 14) 뱃사공 노 젓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서렸는데, 이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 주희(朱熹)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 15) 장사를 지나가니 가태부는 간 곳이 없고, (‘장사’는 중국 호남성의 수도. ‘가태부’는 높은 벼슬에 올랐으

떡라수(溘羅水)를 바라보니 굴삼려(屈三閭)의 어복
 충혼(魚腹忠魂) 무양(無恙)도 하듯던가.¹⁾
 황학루(黃鶴樓)를 당도하니, 일모향관하처시(日暮鄉
 關何處是)요,²⁾
 연파강상사인수(烟波江上使人愁)는 최호(崔顥)의
 유적(遺跡)인가.³⁾
 봉황대(鳳凰臺)를 다다르니 삼산(三山)은 반락청천
 외(半落青天外)요,⁴⁾
 이수중분백로주(二水中分白露洲)는 이태백이 놀던
 데요,⁵⁾
 심양강(尋陽江) 들어가니 백낙천(白樂天) 일거(一
 去)후에 비파성(琵琶聲)도 끊어졌다.⁶⁾
 적벽강(赤壁江)을 그쳐 가랴. 소동파(蘇東坡) 놀던
 곳은 의구(依舊)하여 있다마는,⁷⁾
 조맹덕(曹孟德) 일세지웅이금(一世之雄而今)에 안
 재재(安在哉)요,⁸⁾
 월락오제(月落烏啼) 깊은 밤에 고소성(姑蘇城)에다
 배를 매고,⁹⁾
 한산사(寒山寺) 쇠북 소리¹⁰⁾는 객선(客船)에 땡땡

나, 모함을 받아 장사왕의 태부로 좌천된 한나라 사
 람으로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아 장사왕
 의 태부로 좌천된 한나라 사람.)

- 1) 떡라수를 바라보니, 굴삼려의 충성심은 아무 탈이 없었던가.
- 2) 황학루에 당도하니, 날은 저물었는데 고향은 어딘인가. ('황학루'는 중국 호북성 무창 양자강 곁에 있는 누각.)
- 3) 연기에 잠긴 물결 위에서 시름겨워하노라. - 최호(崔顥)의 '황학루(黃鶴樓)'.
- 4) 봉황루에 다다르니 삼산의 봉우리 푸른 산 밖으로 반쯤 솟아 있고,
- 5) 백로주에서 갈라져 흐르는 두 강은 이태백이 놀던 데라. - 이백의 '봉황대시(鳳凰臺詩)' (두 강은 진수(秦水)와 회수(淮水), '백로주'는 중국 양자강(揚子江) 가운데 있던 모래섬.)
- 6) 심양강에 들어가니 백낙천이 한 번 간 후에 비파 소리 끊어졌고, (당나라 때의 시인 백낙천이 '심양강'에서 친구와 헤어지며 '비파행(琵琶行)'을 지음.)
- 7) 적벽강을 그쳐 가랴. 소동파가 놀던 곳은 옛 모습 그대로인데. (송나라 때의 문인 소동파(蘇軾)가 강에서 뱃놀이하고 '적벽부(赤壁賦)'를 지음.)
- 8) 조맹덕은 한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가. - 소식(蘇軾)의 '적벽부(赤壁賦)' (조맹덕은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의 시조인 조조(曹操).)
- 9) 달 지고 까마귀 울어대는데, 고소성에 배를 매고. 月落烏啼霜滿天(월락오제상만천) -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

떨어진다.
 진회수(秦淮水)를 바라보니, 격강(隔江)의 상녀(商
 女)들은 망국한(亡國恨)을 모르고서,¹¹⁾
 연롱한수월롱사(煙籠寒水月籠沙)에 후정화(後庭花)
 만 부르더라.¹²⁾
 소상강(瀟湘江) 들어가니 악양루(岳陽樓)¹³⁾ 높은 집
 에 호상(湖上)에 높이 뒀다.
 동으로 바라보니 삼백척(三百尺) 부상(扶桑)까지
 일륜홍(一輪紅)이 어려 있고,¹⁴⁾
 바다가 뒤끓으며 어룡이 출몰(出沒)하고,
 한곳을 당도하니 금계(金鷄) 소리가 쨍그랑쨍 들리
 거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백옥현판(白玉懸板)에 황금 대
 자(大字)로
 남해 수궁 수정문이라 뚜렷이 새겼는데, 토끼가 보
 고서 좋아라고 한다.

<아니리>

“아닌 게 아니라, 대체 좋소. 좋아. 어서 들어
 가서 나 훈련대장(訓練大將)¹⁵⁾ 좀 꼭 하게 하여
 주시오.”

“아따, 그것은 염려 마시오. 그런데 여기 가만
 히 앉아 계시다가, 혹시 토끼 잡아들여라 하거
 든 놀래지 마시오.”

“어찌 그렇단 말이오?”

“세상¹⁶⁾ 같고 보면 훈련대장 입시(入侍)하라
 하는 그 말이요.”

“그 법 참 말질(末質)¹⁷⁾법이오. 내가 훈련대장

- 10) 소상 팔경의 하나로서 연사만종(煙寺晚鐘)이라 함.
- 11) 진수와 회수 바라보니 강을 두고 주막의 여인들은 망국한을 모르는데,
- 12) 찬물에는 안개가, 모래에는 달빛이 서렸는데, 후정화만 부르더라. -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 ('후정화'는 진후주(陳後主)가 주색에 빠져 사치스러운 누각을 짓고 놀면서 주고받은 시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골라 만든 가곡(歌曲).)
- 13) '소상강'은 중국 호남성 동정호의 남쪽에 있는 소수(瀟水)와 상강(湘水). '악양루'는 소상강에 있는 누각.
- 14) 동쪽을 바라보니 해 뜨는 동쪽 바다로 삼백 척이나 붉게 햇무리가 어려 있고.
- 15) 훈련도감의 종이품 주장(主將).
- 16) 육지.

하게 되면 그 법은 딱 뜯어 고칠라요.”

“그것은 그리하시오.”

그때에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 공손히 복지(伏地)¹⁾하여 여쭙오되,

“만리(萬里)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現身)²⁾이오.”

용왕이 반겨하사,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生擒)³⁾하여 쥬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리노니

<자진모리>

좌우 나졸(邏卒) 금군(禁軍)⁴⁾ 모조리, 순령수(巡令手)⁵⁾ 일시에 내달아 토끼를 에워쌀 제, 진시황(秦始皇) 만리장성 쌓듯, 산양(山陽) 싸움에 마초(馬超) 싸듯,⁶⁾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 들이쳐 잡는 거동, 영문출사(營門出師)⁷⁾ 도적 잡듯 토끼 두 귀를 짹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며,

“토끼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三伏) 다름⁸⁾에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어 오계탕(烏鷄湯)⁹⁾ 달여 먹고, 네 껌질 벗겨내어 잘량¹⁰⁾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瘀血)¹¹⁾, 내중

17) 질이 좋지 않음.
1) 땅에 엎드림.
2) 지체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뵈.
3) 생포.
4)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던 군대.
5) 대장의 명령을 전달하고 호위를 맡으며, 순시기·영기(令旗) 따위를 들던 군사.
6) 삼국지에서 조조가 유비의 마초를 포위했던 일.
7) 병영의 문으로 병사들이 나섬.
8) 복날에 고기불이로 국을 끓여 먹는 일.
9) 오골계탕.
10)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다룬 개의 가죽.

(內腫)¹²⁾, 혈담(血痰)¹³⁾에는 만병회춘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도판(屠板)¹⁴⁾에 너를 잡아 두피(肚皮)¹⁵⁾, 족(足) 살찐 다리, 양(臑)¹⁶⁾ 회간(膾肝), 처넙¹⁷⁾ 콩팥 후박(厚薄)없이¹⁸⁾ 나눠 먹고, 네 뺨 빼어 활도 매고, 네 가죽 벗겨 내어 신도 짓고, 북도 매고, 똥오줌은 거름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토끼가 생각을 하니, 날지도 뛰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없이 죽었구나.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관목(先觀目) 후관족(後觀足)¹⁹⁾이라. 요단항장 천리마(腰短項長千里馬)²⁰⁾로다. 연왕(燕王)도 오백 금으로 죽은 뺨 사셨으니, 너를 산 채 몰아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 상을 아니 주랴. 들거라.”

우우, 토끼를 결박하여 빨그란 주장(朱杖) 대²¹⁾로 꼭 찢러 들어 매니 토끼 하릴없이 대롱 대롱 매달려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와야.”

“나 탄 게 이게 무엇이냐?”

“오 그게 수궁(水宮) 남여(藍輿)²²⁾라 하는 것이다.”

11) 타박상 등으로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아 살 속에 멍이 들어 피가 맺혀 있는 것.
12) 내장에 난 종기.
13) 피가 섞인 가래.
14) 소 잡는 곳.
15) 뺨살.
16) 소의 뺨통을 고기로 일컫는 말.
17) 소나 양 따위의 반추 동물의 겹주름위.
18) 똑같이.
19) 먼저 눈을 보고 다음에 다리를 봄.
20) 허리가 짧고 목이 긴.
21) 주릿대, 무기 등으로 쓰는 붉은 칠을 한 몽둥이.
22) 가마.

“아이고, 이 급살(急煞)을 맞을 년의 남여. 두 번만 타게 되면 옹두리뼈¹⁾도 안 남겠네.”

토끼를 결박하여 영덕전 너른 뜰 동대이쳐
“예. 토끼 잡아들었소.”

<아니리>

토끼 잡혀 들어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江漢之將)²⁾과 천택지신(川澤之臣)³⁾이 좌우로 옹위(擁衛)⁴⁾를 하였거늘, 눈만 깜작깜작하고 있을 적에 용왕이 분부를 하시되,

“네 토끼 듣거라. 내 우연 득병하여 명의(名醫)에게 물은즉,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내보내어 너를 잡아 왔으니 죽노라 한(恨)을 마라.”

토끼가 생각하니,

‘저놈한테 속절없이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구나.’

한 피를 얼른 내어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아,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저놈이 배를 안 따일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할 터인데,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미는 것이 필유곡절(必有曲折)⁵⁾이로구나.’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고 죽으려 무나.”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끝이 아니 들으실 터이니, 두말 말고 내 배 따 보시오.”

“아니, 이 녀석아. 이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중모리>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태산이 붕퇴(崩頽)⁶⁾하여 오성(五星)⁷⁾이 음

1) 짐승의 정강이에 불통하게 나온 뼈.
2) 강과 바다의 장수.
3) 넷물과 연못의 신하들.
4) 주위를 둘러쌌음.
5)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
6) 무너짐.

음(陰陰)⁸⁾한데, 시일갈상(是日曷喪)⁹⁾ 노랫소리 탐학(貪虐)¹⁰⁾한 상(商)¹¹⁾ 주엄군(紂嚴君)¹²⁾ 성현(聖賢)의 뱃속에 칠(七) 구멍이 있다기로 비간(比干)¹³⁾의 배를 갈라 무고(誣告)¹⁴⁾히 죽였으나, 일곱 구멍 없었으니,

소퇴(小兎)¹⁵⁾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은 불쌍한 토명(兔命)¹⁶⁾만 끊사오니, 뉘를 보고 달라 하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에 배를 따서 보옵소서.”

용왕이 듣고 진노(瞋怒)¹⁷⁾하여

“이놈. 네 말이 모두다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의서(醫書)¹⁸⁾에 이르기를, 비수병즉(脾受病則) 구불능식(口不能食)¹⁹⁾하고, 담수병즉(膽受病則) 설불능언(舌不能言)²⁰⁾하고, 신수병즉(腎受病則) 이불능청(耳不能聽)²¹⁾하고, 간수병즉(肝受病則) 목불능시(目不能視)²²⁾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퇴가 아뢰리다. 소퇴의 간(肝)인즉 월륜정기(月輪精氣)²³⁾로 생겼삽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어내다 세상의 병객(病客)들이 소퇴 곧 얼른 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파초잎에다 꼭꼭 싸서 씹노²⁴⁾

7) 금성·목성·수성·화성·토성의 다섯 별.
8) 어두움.
9) ‘언제 해가 지느냐?’는 뜻으로, 하나라의 폭군 걸이 자신을 해에 비유하자, 이에 백성이 빨리 해가 없어지기를 기다렸다고 하는 고사
10) 탐욕이 많고 포학함.
11) 은(殷)나라 사람은 수도의 이름에 따라 상나라로 자칭하였음.
12)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폭군 주(紂).
13) 중국 상의 정치인으로, 주왕이 폭정을 하자 간언하다 살해됨.
14) 없는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하거나 고소함.
15) 토끼가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
16) 토끼의 목숨,
17) 성을 내며 노여워함.
18) 의학에 관한 책.
19) 비자에 병이 나면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함.
20) 쓸개에 병이 나면 혀로 말을 하지 못함.
21) 콩팥에 병이 나면 귀로 듣지를 못함.
22) 간에 병이 나면 눈으로 보지를 못함.
23) 둥근 달의 정기.
24) 씹던굴로 만든 노끈.

로 칭칭 동여, 영주 석산(瀛洲石山)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上上)¹⁾ 가지 끝끝머리 달아 매고
도화유수옥계변(桃花流水玉溪邊)²⁾에 탁족(濯
足)³⁾하러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가로 완경(玩景)차로 왔나이다.”

용왕이 듣고 진노하여,

“이놈. 네 말이 모두다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내장(一身之內臟)⁴⁾은
다를 바가 없는데,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任意)⁵⁾로 출입한단 말이냐?”

토끼가 당돌히 여쭙오되,

“대왕은 지기일(知其一)이요, 미지기이(未知
其二)⁶⁾로소이다. 복희씨(伏羲氏)는 어이하어
사신인수(蛇身人首)⁷⁾가 되었으며, 신농씨(神農
氏) 어쩐 일로 인신우두(人身牛頭)⁸⁾가 되오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드란⁹⁾ 하옵고,
소퇴는 무슨 일로 꼬리가 요리 뭉뚝하옵고, 대
왕의 옥체에는 비늘이 번쩍번쩍, 소퇴의 몸에는
털이 요리 송살송살¹⁰⁾,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개 있고, 오후 까마귀 쓸개 없으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飛禽走獸)¹¹⁾가 한가지라.
백백 우기니 답답하지 아니하오리까.”

용왕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리하면 네 간을 내고 들이고 임의로 출입
하는 표(標)¹²⁾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아 보시오.”

빨그런 구멍이 셋이 늘어 있거늘,

“저 구멍 모두 다 어쩐 내력(來歷)이냐?”

“예, 내력을 아뢰리다. 한 구멍은 대변보고,
또 한 구멍으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구멍으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의로 출입하나이다.”

“그러하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
냐?”

“입으로 넣고 밀구멍으로 내놓으니, 만물시생
(萬物始生)¹³⁾이 동방삼팔목(東方三八木), 남방
이칠화(南方二七火), 서방사구금(西方四九金),
북방일륙수(北方一六水), 중앙오십토(中央五十
土)¹⁴⁾, 천지음양(天地陰陽), 오색(五色) 광채(光
彩), 아침 안개, 저녁 이슬 화(化)하여, 입으로
넣고 밀구멍으로 내 오니, 만병회춘 명약이라
으뜸약이 되나이다.

미련하더라, 저 주부야. 세상에서 날 보고 이
런 이야기를 하였으면 간을 팔알만큼 떼어다가
대왕병도 즉차(卽瘥)¹⁵⁾하고, 너도 충성이 나타
나서 양주(兩主) 양합(兩合)¹⁶⁾이 좋을 것을. 미
련하더라. 저 주부야. 만시지탄(晩時之歎)¹⁷⁾이
쓸데가 없네.”

<아니리>

토끼가 어찌 궤변(詭辯)¹⁸⁾을 늘어났든지, 용
왕이 딱 돌렸던가 보더라.

“여봐라, 퇴공을 해(害)하는자는 정배(定配)¹⁹⁾
를 보낼 터이니, 각별히 조심하고 술상 한 상
차려 오너라.”

뜻밖에 수궁 풍류(風流)²⁰⁾가 낭자(狼藉)²¹⁾할
적에,

<옛모리>

왕자진(王子晋)²²⁾의 봉(鳳)피리, 곽처사(郭處

1) 꼭대기.
2) 복숭아꽃 흘러오는 맑은 계곡가.
3) 발을 씻음
4) 몸 안에 내장이 있음.
5) 마음대로.
6)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름.
7) 뱀의 몸에다 사람의 머리.
8)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
9) 길고.
10) 털이 복슬복슬하게 남.
11) 날짐승과 길짐승.
12)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징.

13) 만물이 성장함.
14) 풍수지리설. 미주 참고.
15) 병이 곧바로 나음.
16) 부부가 화목하게 지냄.
17)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한탄.
18) 이치에 맞지 않는 구변(口辯).
19) 귀양살이할 곳을 정하여 죄인을 유배시킴
20) 속된 일을 떠나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21) 떠들썩하고 시끄러움.
22) 중국 주나라 영(靈)왕의 태자로 생황을 잘 불어
신선이 되었다 함.

士)1) 죽장구(竹杖鼓)2) 찌지렁쿵 정저쿵, 성연자(成連子)3) 거문고 설그덩 동덩덩, 장자방(張子房)4)의 옥통소(玉筒簫) 몇띠루 띠루 띠루, 혜강(惠康)5) 해금이며, 완적(阮籍)6) 휘파람 적타고7), 취옹적(醉翁笛)8), 능파사(凌波詞)9), 보허사(步虛詞)10)며, 우의곡(羽衣曲)11) 채련곡(採蓮曲)12)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한 풍악(風樂) 소리 수궁이 진동한다.

토끼도 신명내어,

<아니리>

앞발을 뒷산자 본13)으로 딱 चु켜 들더니 한번 놀아 보겠다.

<중중모리>

앞내 버들은 청포장(靑布帳)14) 두르고, 뒷산내 버들은 유록장(柳綠帳)15) 둘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춘비춘흥(春悲春興)16)을 못 이기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흔들 노닐 적에, 어머니는 동이를 이고, 아버지는 노구17)를 지

1)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악사.
2) 대나무 장구.
3) 중국 춘추시대 사람으로 거문고의 명인.
4) 한나라의 공신 장량(張良).
5) 중국 죽림칠현(竹林七玄) 중의 한 사람. 노장을 좋아하여 '양생편(養生篇)'을 지음.
6) 중국 위(魏)나라 사람으로 죽림칠현을 이끌며 노장을 좋아하여 술을 좋아하고 거문고를 즐겼음.
7) 악어의 가죽으로 만든 북.
8) 취한 노인이 피리를 불.
9) 당나라 현종이 꿈에 용녀(龍女)의 청을 들어 지었다는 노래.
10) 궁중 연례악의 하나. 왕세자의 거두 때 출궁악(出宮樂)으로 쓰임.
11) 중국 당(唐)나라의 악곡의 하나. 당현종이 가사를 지었다 함.
12) 중국 남방에서 연발을 따면서 부르던 민요로 남녀간의 상사(相思)의 정을 읊은 노래.
13) 모양.
14) 푸른 빛깔의 베.
15) 봄철의 버들잎의 빛과 같이 노란색을 띤 연한 녹색.
16) 봄에 이는 비감함과 흥.
17) 노구술. 늦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술 《자유로이 옮겨서 따로 걸고 쓸 수 있음》.

고, 노고지리 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번쩍 치켜 들더니 출랑출랑이 노닌다.

<아니리>

이리 한참 노닐 적에, 대장 범치18)란 놈이 토끼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 출랑출랑 소리를 듣더니,

“아따, 애들아. 토끼 뺏속에 간 들었다.”

고함을 질러노니, 토끼가 깜짝 놀라 주저앉으며,

“아니 어느 시러배19) 아들놈이 내 뺏속에 간 들었다 하느냐? 못 먹는 술을 빈 뺏속에다가 서너 잔 부었더니, 아마 똥덩이가 출랑출랑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장담은 하였으나,

‘내가 이렇게 오래 지체하다가는 배를 꼭 따일 모양이라.’

용왕께 하직을 하는데,

“대왕의 병세(病勢) 만분위중(萬分危重)20)하오니, 소신이 세상을 빨리나가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

용왕이 이 말을 듣더니,

“여봐라. 별주부는 퇴공(兎公)을 모시고 세상을 나가, 간을 주저들랑은 속히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 노니, 별주부 기가 막혀,

<중중모리>

별주부가 울며 여쭙오되,

“토끼란 놈 본시 간사(奸詐)21)하여 뺏속에 달린 간 아니 내고 보면은, 초목금수(草木禽獸)라도 비소(鼻笑)22) 할 테요, 맹획중칠금(七縱七擒)23)하던 제갈량(諸葛亮)의 재조 아니거든, 한번 놓아 보낸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18) 망둥이.
19) 실없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20) 병세가 아주 깊고 위태로움.
21) 나쁜 꾀가 있어 남을 잘 속임.
22) 코웃음.
23)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 주었다 함을 이르는 말.

당장에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소신의 구족(九族)¹⁾을 멸하여 주옵고, 소신을 능지처참(凌遲處斬)²⁾하더라도 여한(餘恨)이 없사오니, 당장 배를 따 보옵소서.”

토끼가 기가 막혀,

“여봐라. 이놈 별주부야. 야, 이놈 몹쓸 놈아. 왕명(王命)이 지중(至重)커늘, 네가 어찌 기만(欺瞞)³⁾하라. 옛말을 내가 못 들었느냐. 하결학정(夏傑虐政)⁴⁾으로 용방(龍逢)⁵⁾을 살해코미구(未久)⁶⁾에 망국(亡國)되었으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의 나라 원귀(冤鬼)⁷⁾ 되어 너의 용왕 백 년 살 때 하루도 못 살 테요, 너의 나라 만조백관(滿朝百官) 한날 한시에 모두다 몰살(沒殺)시키리라. 아나 였다. 배 갈라라. 아나 였다. 배 갈라라. 아아나, 였다. 배 갈라라. 똥밖에는 든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너 보아라.”

<아니리>

“왜 이리 잔말이 심한고. 어서 빨리 나가도록 해라.”

별주부 하릴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오며,

“야 이놈. 토끼야. 내가 가기는 가되, 네 이놈 속은 있을 것이다.”

<진양>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二水)를 지나 백로주(白鷺洲)를 어서 가자. 고국산천을 바라보니 청천외(靑天外) 멀어 있고, 일락장사 추색원

1) 외조부·외조모·이모의 자녀·장인·장모·고모의 자녀·자매의 자녀·딸의 자녀 및 자기 동족(同族).
 2) 머리·몸통·팔·다리를 토막 쳐 죽이던 극형.
 3) 남을 속여 넘김.
 4) 하나라 걸왕의 포악한 정치. 걸왕은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로, 포악하고 사치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짐.
 5) 중국 하나라의 신하로, 걸왕에게 간언하다 죽임을 당함.
 6) 머지않아.
 7)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

(日落長沙秋色遠)하니 부지하처조상군(不知何處弔湘君)하고⁸⁾,

한곳을 당도하니 한 군자(君子)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 문왈(問曰),

“퇴공은 하이지차(何以至此)⁹⁾하오?”

토끼가 듣고 대답을 하되

“회족청산(回足靑山)하니 관불과제관(觀不過諸觀)이요¹⁰⁾, 탁족무림(濁足無臨)하고 태불과 봉황(殆不過鳳凰)이라¹¹⁾. 소무지식(素無知識)하고 유매평생(流魅平生)이라.¹²⁾”

한곳을 당도하니 돛대 치는 저 사공은 월범려(越范蠡)¹³⁾ 아닐런가. 함외장강공자류(檻外長江空子流)¹⁴⁾는 등왕각(藤王閣)이 여기로구나.

<중중모리>

백로주 바삐 지나 적벽강(赤壁江)을 당도하니, 소자첨(蘇子瞻) 범중류(泛中流)로다. 동산에 달 떠 오네. 두우간(斗牛間)¹⁵⁾ 배회하고 백로횡강(白鷺橫江)¹⁶⁾ 함께 가 소지노화월일선(笑指蘆花月一船)¹⁷⁾ 초강(楚江) 어부가 비인 배 기경선자(騎鯨仙子)¹⁸⁾ 간 연 후에, 공추월지단단(空秋月之團團)¹⁹⁾ 자라 등에다 저 반달 실어라. 우리 고향을 어서 가 환산농명월(還山弄明月)²⁰⁾ 원해(遠海) 근산(近山)²¹⁾ 좋을시고.

8) 해는 장사에 떨어지고 가을빛은 멀찍한데, 어디에 가서 상군(아황과 여영)을 조문할까 - 이백의 ‘유동정호시(遊洞庭湖詩)’

9) 어찌 이곳에 이르렀는가?

10) 청산으로 발길을 돌려 돌아오니 경치마다 정겨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고,

11) 더러운 발이 이르지 않아 봉황도 그대로 지나치지 않음.

12) 분디 지식이 없어 도깨비가 되어 평생을 떠돌 뻔 했노라.

13) 월나라의 범려.

14) 난간 밖의 긴 강물만 무심히 스스로 흐르네. -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

15) 견우성과 직녀성 사이

16) 백로와 강을 함께 건너 -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

17) 갈대꽃과 달빛의 배 하나를 가리키며 웃네. - ‘명시종(明詩綜)’

18) 이태백.

19) 빈 하늘엔 가을 달만 등글어.

20) 산중으로 돌아와 밝은 달을 즐김.

21) 바다가 멀고, 산이 가까운 곳.

기주(沂水)로 돌아들 적에 어조(漁釣)¹⁾하던 강태공은 위수(渭水)로 돌아들고 은린옥척(銀鱗玉尺)²⁾뿐이라. 벽해수변(碧海水邊)³⁾을 당도하여 강층 뛰어내리며 모르는 체 가는구나.

<아니리>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퇴공. 여보, 퇴공. 간쑼 빨리 가지고 오시오.”

가던 토끼 돌아다보며 욱을 한번 퍼붓는데,

<중모리>

“제기⁴⁾를 불고 발기를 갈 녀석.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희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희 용왕 실겁기⁵⁾ 나 같고 내 미련하기 너희 용왕 같거든 영락없이 죽을 걸. 내 밀구멍 셋이 아니었다면 내 목숨이 살아나리.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白雲靑山)으로 나는 간다.”

<아니리>

별주부 기가 막혀
“아이고, 퇴공. 간 쑼 팔알만큼만 떼어 주고 가란 말이오.”

가던 토끼 힐끗 돌아서며,

“네 이놈, 별주부야. 너를 단박⁶⁾에 내민 바위에다 용기 짐을 부수듯 확 부셔 죽일 일로되, 수로 만리를 나를 업고 다닌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이다음에는 다시 그런 보추떼기⁷⁾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의 용왕에 먹일 약이나 하나 일러 주마. 수궁에 들어가면 암자라⁸⁾ 이쁜 놈 많이 썩였더구나. 하루 일천오

1) 낚시.
2) 비늘이 번쩍번쩍하는 좋은 물고기
3) 푸른 물가.
4) 제기랄.
5) 마음이 너그러움.
6) 그 자리에서 바로.
7) 진취성이나 내뿜는 성질.
8) 암컷 자라.

백 마리씩만 잡아서 석 달 열흘간 먹이고, 복쟁이⁹⁾ 쓸개를 천석(千石)을 만들어서 양일 간에다 먹으면, 죽든지 살든지 양단(兩端)¹⁰⁾ 간에 끝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창조>

별주부는 하릴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아니리>

토끼란 놈은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을 떨다가 탁 그물에 걸렸겠다.

<창조>

“아이고, 이 일을 어쩔거냐.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다라면, 정초(正初), 한식(寒食) 단오(端午), 추석(秋夕)이나 받아먹을 것을, 이제는 뉘 놈에 뱃속에다 장사(葬事)¹¹⁾를 할 거냐.”

<아니리>

이리 한참 씹게 울며 축 처져 있을 적에, 쉬파리 떼가 웅 날아드니 토끼 어찌 좋았던지,

“아이고, 쉬낭청(郎廳)¹²⁾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쉬파리 떼들이 깜짝 놀라,

“이놈 죽은 줄 알고 쉬 설라고¹³⁾ 왔더니, 너 살았구나. 네 이놈. 그물에 걸렸으니 속절없이 죽게 생겼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사오나, 내 몸에다 쉬나 좀 실어 주시오.”

“네가 피를 부릴 양으로, 쉬를 실어 달라 하지만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의 손이 어떻단 말씀이요?”

“내가 이를 테니 들어봐라.”

9) 전복.
10) 양쪽 끝.
11)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火葬)하는 일.
12) ‘쉬’는 쉬파리. ‘낭청’은 실록청·도감(都監) 등의 임시 기구에서 실무를 맡아보던 당하관 벼슬.
13) 쉬파리 알을 낳으려고.

<자진모리>

아래 - '손타령'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보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얹어놓으면 하늘이요, 되
 세워 놓으면 땅인데,
 요리조리 금이 있기는 일월(日月) 다니는 길이요,
 엄지장가락¹⁾이 두 마디는 천지인(天地人) 삼재(三
 才)요,
 지가락²⁾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정월 이월 삼월,
 장가락³⁾이 그중에 길기는 사월 오월 유월이요,
 무명지(無名指)⁴⁾가락이 장가락만 못하기는 칠월
 팔월 구월이요,
 소지(小指)⁵⁾가 그중에 짧기는 시월 동지설달인데,
 자오(子午) 묘유(卯酉)가 여기 있고,
 건감간진(乾坎艮震) 손이곤태(巽離坤兌) 선천팔괘
 (先天八卦)^{미주3)}가 여기 있고,
 불도(佛道)로 두고 일러도 감중연(坎中連) 간상연
 (艮上連)⁶⁾ 여기 있고,
 육도기문(六道記文)⁷⁾에 대장경(大藏經) 천지가 모
 두 일장(一掌)⁸⁾ 중이니,
 네 아무리 피를 낸들 사람의 손 하나 못 당하리라.
 두말 말고 너 죽어라.

<아니리>

“그저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으니, 내
몸에다 쉬나 좀 실어 주시오.”

쉬파리 떼가 달려들어 쉬를 빈틈없이 담뱃
실어놓고 날아간 뒤에, 토끼란 놈은 죽은 듯이
엎어져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초동목수(樵童牧

1) 엄지손가락.
 2) 집게손가락.
 3) 가운데손가락.
 4) 넷째 손가락.
 5) 새끼손가락.
 6) 모두 팔괘의 하나. 팔괘는 곤삼절(坤三絶), 간상련(艮上連), 감중련(坎中連), 손하절(巽下絶), 진하련(震下連), 이허중(離虛中), 태상절(兌上絶), 건삼련(乾三連).
 7) 중생이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여섯 세계. 지옥, 마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8) 손바닥.

插) 아이들이 지게 갈퀴 짊어지고 메나리⁹⁾를
부르며 올라오는데,

<중모리>

아래 - '초군신세타령'

아이가리너, 어이가리너, 어이가리너 너와 넘차.
 사람이 세상에 생겨날 제 별로 후박(厚薄)¹⁰⁾이 없
 건마는
 우리네 팔자는 무슨 여러 팔자로서 심심산곡(深深
 山谷)을 다니는가.
 여보아라, 동지(同志)들아. 너는 저 골을 베고, 나
 는 이 골을 베어,
 부러진 잡목(雜木) 떨어진 낙엽을 긁고 베고 몽똥
 그려
 위(爲) 부모 처자를 극진 공대를 하여 보세.
 어이가리너 너와 넘차.

<아니리>

이리 한참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려 있
졌다.

“아따, 애들아. 토끼 걸렸다. 거 불 피워라.
구워 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썩 빼어보
더니,

“야 이놈 걸린 지 오래다. 쉬를 담뱃 실었구
나.”

“그러면 냄새를 맡아 보아라.”

이놈이 냄새를 맡되, 머리썩 맡았으면 잘 구
워 먹고 갈 것인데, 하필이면 밑구멍에다 맡은
것이 피 많은 토끼가 수궁에서 참고 나왔던 도
토리 방귀를 스프르르 뀌어놓으니, 꼭 구렁이
썩는 냄새가 나겠다.

“아따 이것 썩었다.”

한 놈 있다가,
“썩었으면 내버려라.”

획 집어 내던진 것이 저 건너가서 오뚝 서서
“어이 게 시러배 아들놈들. 너희들보다 더한

9) 농부가.
 10) 두꺼움과 얇음.

수궁에 가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너 같은 놈들한테 죽을 소냐?”

토끼란 놈이 살아났다고 신명내어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중중모리>

아래 - 가야금병창 ‘관대장자(寬大長者)’

관대장자(寬大長者) 한고조(漢高祖) 국량(局量) 많기가 나만 하며,¹⁾

운주결승(運籌決勝) 장자방(張子房)이 의사(意思) 많기가 나만 하며,²⁾

신출귀몰(神出鬼沒) 제갈량이 조화 많기 나만 하며,

무릉도원(武陵桃源) 신선이라도 한가하기가 나만 하며,

예 들던 청산 두견 자주 운다.

각 새소리 타향 수궁 갔던 벗님 고국산천이 반가워라.

기산광야(岐山廣野)³⁾ 너른 천지 금잔디 좌르르르 깔린 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깡충 뛰어 노닐며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고국산천이 반가워라.”

<아니리>

이리 한참 노닐 적에 독수리란 놈이 어디서 웅 하더니 토끼 대갈뺨을 후다닥 툭탁.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오, 내가 등 떠다니다가 시장해서 너를 잡아 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까요?”

“맛 좋은 대가리서부터 먹어야겠다.”

<창조>

1) 성품이 너그럽고 점잖은 한고조 유방이 도량이나 궁리가 나만 하며.

2)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장자방이 생각 많기가 나만 하며, (‘장자방’은 한고조 유방의 공신. ‘운주결승’은 군막 속에서 장자방이 전략을 세움.)

3) 기산의 넓은 들.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싫지 않으나 나의 설움이나 들어 보시오.”

<아니리>

“아니, 이놈아. 내가 무슨 설움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청승조⁴⁾로 한번 울어보는데

<중모리>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수궁 천 리 먼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내 온 것을 무주공산(無主空山)⁵⁾에다 던져두고 입자 없이 죽게 되니 이 아니 싫소이까?”

<아니리>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엘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수궁엘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즙치(意思즙치)⁶⁾를 하나 주십디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상스럽디다. 짝 펴놓고 보면 구멍이 서너 개 뚫렸는데, 그래서 한 구멍을 탁 통기면서 썩은 돼지 창자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통기면서 돼지 새끼나 개창자나 나오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구멍을 툭 통기면서 병아리 새끼들 나오너라 하면, 병아리 새끼가 하루에 일천오백 마리씩이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좋은 보물을 입자 찾아 못 주고, 저기저 무주공산에다가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원통하요?”

“야, 이놈. 토끼야. 그러면 네 목숨을 살려줄테니 그것 좀 날 줄래?”

4) 공상스럽고 처량하여 보기에 언짢은 태도나 행동.

5) 인가도 인기척도 없는 쓸쓸한 산.

6) 갇은 피가 들어 있는 주머니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갈뺨을 좋은 소주병
들 듯 딱 들고서 훨훨 날아가더니

“여기냐?”

“예.”

바위 옆에다 턱 내려놓고

“나 시장해 못 살겠다. 어서 빨리 의사춤치
좀 나오너라.”

“장군님,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내을 텐데
내 뒷발을 잡고 계시다가 놓아달라는 대로 조
금씩 놓아 주십시오.”

토끼는 피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바위틈에다
꼭 집어넣고 버리더니

“장군님 조금만 놓아 주시오. 아, 닿을 만합니
다. 조금만 더 쪼끔쪼끔쪼끔.”

하다가 갑자기 뒷발을 탁 차고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더니, 느닷없이 시조 반장을 내겠다.

<시창>

세월이 여류(如流)하여

<아니리>

“야 이놈 토끼야. 아, 내가 시장해 죽었는데
무엇이 그리 한가한 체하고 들어가서 시조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이리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네 이놈, 독수리야.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네 이놈. 다시 안 나올래?”

“내가 노래(老來)¹⁾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에
서 손자나 봐주고 지낼란다. 어서 잔말 말고 날
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났으니, 의사춤
치라 하는 것이다.”

1) 늘그막.

<엇중모리>

독수리 그제야 돌린 줄을 알고 훨훨 날아가
고, 별주부 정성으로 대왕 병도 즉차(卽瘥)하
고, 토끼는 그 산중에서 완연히 늙더라. 그 뒤
야 뉘가 알리. 호가창창불락(好歌唱唱不樂)²⁾이
라. 더질더질³⁾

2) 좋은 노래도 부르고 또 부르면 즐겁지 않음.

3) 판소리 창자가 공연을 끝내고, 엇중모리장단에 맞추어 평조 가락으로 부르는 뒤풀이.

1) (오행의 종류(五行의 種類))

번호	오행의 종류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		비고
1	정오행 正五行	천간(天干)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지지(地支)	인寅	묘卯	오午	사巳	진,술 辰,戌	축,미 丑未	신申	유酉	자子	해亥	
2	팔괘(八卦)오행		진震	손巽		이離	간艮	곤坤	건乾	태兌	감坎		
3	삼합(三合)오행		해묘미 亥卯未		인오술 寅午戌				사유축 巳酉丑		신자진 申子辰		12포태 중 生旺墓
4	쌍산(雙山) 삼합(三合)오행		乾亥, 甲卯 丁未		艮寅, 丙午 辛戌				巽巳, 庚酉 癸丑		坤申, 壬子 乙辰		쌍산 배합
5	사국(四局) 오행		丁未, 坤申 庚酉		辛戌, 乾亥 壬子				癸丑, 艮寅 甲卯		乙辰, 巽巳 丙午		水口기준 四局결정
6	성수(星宿) 오행 28수(二十八宿) 오행		乾, 坤, 艮, 巽		甲, 庚, 丙, 壬 子, 午, 卯, 酉		乙, 辛, 丁, 癸		辰, 戌, 丑, 未		寅, 申, 巳, 亥		좌와 사격의 길흉화복
7	소현공(小玄空) 오행		甲, 艮, 癸, 亥		丙, 丁, 乙, 酉		庚, 戌, 丑, 未		乾, 坤, 卯, 午		壬, 子, 寅, 辰 巽, 巳, 辛, 申		向과 水의 來去 관계
8	대현공(大玄空) 오행		壬, 午, 坤, 辛 申, 戌		甲, 巽, 癸, 酉 未, 亥				子, 寅, 乙, 辰 乾, 丙		丑, 艮, 卯, 巳 丁, 庚		향(向)으로 長生을 봄
9	홍범(洪範) 오행		艮, 卯, 巳		壬, 乙, 丙, 午		癸, 丑, 未, 坤 庚		丁, 酉, 乾, 亥		子, 寅, 甲, 辰 巽, 辛, 申, 戌		장택에서 산운과 연운
10	오음(五音)		아음(牙音) ㄱ, ㅋ		설음(舌音) ㄴ, ㄷ, ㄹ, ㄷ		후음(喉音) ㅇ, ㅎ		치음(齒音) ㅅ, ㅆ, ㅈ		순음(唇音) ㅁ, ㅂ, ㅍ		
11	수(數)오행		3, 8		2, 7		5, 10		4, 9		1, 6		
12	방위(方位) 오행		동(東)		남(南)		중앙(中央)		서(西)		북(北)		
13	오상(五常)오행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14	절기(節氣)		봄(春)		여름(夏)		사계(四季)		가을(秋)		겨울(冬)		
15	색(色)		청색(靑)		빨강(赤)		노랑(黃)		흰색(白)		검정(黑)		
16	맛(味)		신맛(酸)		쓴맛(苦)		단맛(甘)		매운맛(辛)		짠맛(鹹)		鹹: 짠 함
17	오체(五體)		마음(心)		체온(溫)		살(肉)		호흡(息)		피(血)		息: 숨쉴 식
18	오장육부 및 질환		간장(肝臟) 쓸개(膽) 신경, 얼굴 두통		심장(心臟) 소장(小腸) 눈병, 편두 고혈압증		비위(脾胃) 위장(胃腸) 피부, 당뇨 복부		폐장(肺臟) 대장(大腸) 근골, 사지 호흡질환		신장(腎臟) 방광(膀胱) 자궁, 혈액 생식기		
19	오관(五官)		눈(目)		혀(舌)		몸(身)		코(鼻)		귀(耳)		
20	상생상극 (相生相剋)		木生火 木剋土		火生土 火剋金		土生金 土剋水		金生水 金剋木		水生木 水剋土		

2) 위의 표 참조.



천도(天道)의 이치를 밝힌 것으로 마주하는 괘(卦)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이루는데 이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한다. 괘가 모습을 달리하여 돌아가면서 태극의 모습을 이루는데 이것이 역(易)의 이치이다. 즉 역의 이치는 바뀌어 돌아감이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의 이치는 육십갑자(六十甲子)에서도 잘 드러난다.

3)